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무속신앙 대상 돌(石)의 이미지를
응용한 도자조형 연구

Research Of Ceramic Art Molding Applying Images of Rocks
that Represent Jeju Shamanism

제 출 자 : 이 영 식

지도교수 : 김 혁 수

2005

도예학과

도예전공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무속신앙 대상 돌(石)의 이미지를
응용한 도자조형 연구

Research Of Ceramic Art Molding Applying Images of Rocks
that Represent Jeju Shamanism

제 출 자 : 이 영 식

지도교수 : 김 혁 수

2005

도예학과

도예전공

단국대학교 대학원

제주도 무속신앙 대상 돌(石)의 이미지를
응용한 도자조형 연구

Research Of Ceramic Art Molding Applying Images of Rocks
that Represent Jeju Shamanism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예학과
도예전공

이영식의 석사학위 논문을
합격으로 판정함

심사일 : 2005. 6.

심사위원장	백종후	
심사위원	이복영	
심사위원	김해수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문 요약〉

제주도 무속신앙 대상 돌(石)의 이미지를 응용한 도자조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예학과
이 영 식

지도교수 김 혁 수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예술은 지역의 풍토와 시대상,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향토미는 삶을 통해 반영 된다.

대자연의 오묘함과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예술인들의 정서와 부합해 조형예술의 원류를 통해 독특한 장르의 문화예술로 창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제주의 지리 및 환경적인 조건으로 인해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하게 된 제주의 돌문화를 살펴보면 크게 생산성, 생활성, 공공성, 종교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제주의 돌문화는 풍토적으로 제주의 의식주와 자연적 조건의 한가운데 놓여있다. 제주의 돌문화는 돌이 그 중심에 있음으로 해서 역설적이게도 척박한 자연을 극복하는 지혜의 토대가 된 것이다. 돌은 자연과 제주 사람들의 생존을 이어주는 매개체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자연석은 자연석대로 파도나 바람에 맞서고, 가공된

돌은 실생활에 인접해서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으며, 송조(崇祖)사상과 종교적 역할까지 수행 하면서 섬 땅의 토착적인 돌문화를 이룩하였다.

제주 돌문화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속신앙 대상의 돌문화”이다. 제주 무속신앙에 내재하고 있는 신앙 상징으로서의 돌은 장묘석(문인석, 동자석, 지석묘), 돌탑(거옥), 돌하르방, 무신상, 당신상, 미륵 등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신앙 상징의 돌문화는 제주도 무속사회에서 신격(神格)으로 섬겨 온 전통적인 석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석상들은 종교적인 신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무속문화의 참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석상은 제주의 자연관과 동일하게 변화 발전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자연에 부여된 신격의 형상이 차츰 인격에 투영되면서 신앙석들은 정형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제주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척박한 환경을 삶 속에서 자연과 신 그리고 인간이 함께 공존을 하며 상생하는 방법을 터득해 왔다. 자연석을 통해 신의 형상을 보고, 돌무더기에 공동체의 마음을 의지하며 돌을 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마음의 형태로 보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과정은 제주의 신앙석에 반영된 제주 특유의 자연미와 향토미 그리고 그 속에 어우러진 무속신앙의 돌 문화를 도자조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작 과정을 통해 돌의 표면 질감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흙의 물성을 응용한 표현 기법을 적용 시켰으며, 때론 우연성과 즉흥적인 작업을 바탕으로 작가의 주관적인 조형작품으로 재창조함으로써 본문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작품들은 제주옹기토의 특성을 바탕으로 흙의 색깔 그리고 빛의 산란과 반사 속에서 돌의 이미지가 흙으로,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리고 신앙석의 표정과 인상을 중심으로 이목구비와 몸, 손모양 등의 조형을 연구 분석을 통해서 특징들을 파악하였고 현장 답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지만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해 연구자 스스로 보충하지 못한 부분은 선행 연구자들의 사진과 기타 자료를 정리하여 부족한 부분에 첨부 하였다.

목 차

국문요약	i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I.제주 자연관을 바탕으로 한 돌문화의 일반적 고찰	
1. 생산성의 돌문화	4
2. 생활성의 돌문화	8
3. 공공성의 돌문화	10
4. 종교성의 돌문화	13
 II. 제주 무속신앙에 반영된 신앙석	
1. 제주도 무속신앙의 구분과 성격	27
2. 무속신앙 대상 신앙석의 종류와 특성	33
3. 무속신앙 대상 신앙석의 조형분석	43
 III. 시작품의 디자인 계획과 시안 및 제작과정	
1. 시작품의 디자인 계획	62
2. 시안 및 해설	63
3. 시작품의 제작과정	86
 결론	96
참고문헌	97
영문초록(Abstract)	99

1. 연구의 목적

인간은 눈에 보이고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세계에만 살아 온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존재성과 함께 살아 온 것이다.¹⁾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과 의식 속에서 존재하는 것 중의 하나도 바로 무속에 대한 신앙심일 것이다. 신앙심은 인간의 내면적 욕구를 상징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현재에 까지 제주민의 정체성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예술을 살펴보면 서구문화에 의해 향토적인 문화예술은 조금씩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무런 대안 없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와 반면 우리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노력들이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많은 예술가들이 전통예술 속에서 창작의 의미를 찾기도 한다.

본문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제주의 신앙상징의 돌문화를 토대로 그가 갖는 자연미와 향토성을 중심으로 제주민들의 정신적인 문화의 소산이 된 신앙석의 조형원류를 되짚어 보고 사라져가는 제주의 돌문화 속에 내재하고 있는 향토성을 그리고 그 속에 어우러진 삶의 보습을 작품들을 통하여 표현하고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제주 옛사람들의 자연과 환경에서 오늘 돌문화를 바르게 인식하고 재해석을 하고자 한다.

둘째, 제주전통의 돌 문화 속에 담겨 있는 자유분방함의 자연의 미학을 제주 흙이라는 향토성이 깃든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지역 특유의 아름다운 자연미와 향토미를 재탄생시키려 한다.

셋째, 흙이라는 재료를 통해 본질 이상의 것을 발현하는 것이며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과거와의 소통을 통해 자연석과 석인상의 이미지 세계를 다시 현재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부합을 바탕으로 도자조형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을 본문의 목적으로 한다.

1) 양윤영,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를 주제로 한 유리조형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 2004,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방법으로는 제주 박물관, 민속자료실과 돌문화를 직접 탐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참고문헌과 수집처를 통하여 여러 자료를 얻는다.

또한 선행 연구자들의 무속신앙과 돌이미지와 인체에 관한 작품을 통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찰,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을 전개 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무속신앙 대상의 석상들을 몸매, 이목구비, 모자, 지물, 손 등의 조형 분석을 통하여 개념적으로 느끼는 조형 표현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표현의 객관성을 도출하여 양식화하였고 작품제작에 응용하려고 한다.

제주 신앙석들을 제작 할 때 주로 사용 되었던 다공질현무암은 재료의 독특한 특성을 살려 질감의 이미지를 극대화 하였다. 본인의 작품도 흙으로 제주 돌의 표면적 질감을 중심으로 나타내려고 하였다.

신앙석들의 조형적 향토미를 강조하기 위해 제주에서만 채굴이 가능한 철분성분 적은 화산회토를 가지고 작업을 했다. 화산회토는 제주 용기를 만들었던 소지이며 아직까지도 여러 곳에서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인 방식을 통해 제주 전통용기의 맥을 잇고 있다.

작업에 사용하였던 용기토는 양질의 점토와 가마가 현존하는 북제주군 한경면 조수리 용기마을에서 생산한 용기토를 사용하였다.

신앙석들의 주된 재료가 되었던 다공질 현무암의 표면적 이미지를 흙의 물성을 통하여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표현하였고, 제주용기토의 표면적 질감과 색상을 얻어내기 위해 다양한 소성 방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주의 무속신앙에 내재한 신앙석들의 자유분방함의 이미지를 통해서 도자조형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제주 조형미를 도자조형으로 재 탄생시키는 과정을 제주용기토를 가지고 다양한 표현 기법과 성형 및 소성 방법을 통해 표현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신앙석들의 조형적 향토미를 강조하기 위해 제주에서만 채굴이 가능한 철분성분 적은 화산회토를 가지고 작업하고자 한다. 화산회토는 제주 용기를 만들었던 소지이면, 아직까지도 여러 곳에서 전통적이면서 현대적인 방식을 통해 제주 전통용기의 맥을 잇고 있다.

연구의 범위로는 제주의 무속신앙에 나타난 신앙석과 생산성, 생활성, 공공성, 종교성의 돌문화에 국한시킨다.

연구 방법과 범위를 간단하게 압축시켰지만 방법적으로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다. 제주옹기토의 개량과 새로운 발굴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주 흙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대형 조형작업이 가능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들이다.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과정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I. 제주 자연관을 바탕으로 한 돌 문화의 일반적 고찰

돌과 흙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초가 주변의 자연 환경에서부터 제주의 돌문화를 엿볼 수 있다.

제주의 주거환경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초가집이다. 제주도의 초집(제주도에서는 흔히 "초집"<사진1>이라고 부른다)은 바람과 싸우면서 살아온 제주도민 생활의 표현이다. 초집은 건축학적 측면에서도 내외 건축가들이 칭찬해 마지않는 대상이 되고 있음은 물론, 민속학적인 면에서도 그만큼 학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²⁾

제주의 초집은 뼈대를 나무로 만든 후 주위 벽을 굵은 돌로 쌓아 두르고 제주도 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갈대처럼 생긴 띠풀(또는 "새" 라고도 함)로 지붕을 덮은 것이다. 벽은 흙을 발라 붙여 돌담을 단단히 하고 지붕은 띠로 덮은 후 굵은 밧줄로 바둑판처럼 엮어 놓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태풍과 바람이 많은 제주 기후조건에서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초집을 짓는 데는 이렇듯 크게 3가지 자연재료가 필요했다. 오름과 들판에 자생하고 있는 새와 화산섬 특유의 현무암과 현무암의 풍화작용으로 생성된 흙, 이렇게 주변 환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들을 통해 건축과 식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초가의 건축에는 특이한 몇 가지가 있다.

초집의 벽에는 “고팡구녀” <사진2>이다. 눈높이보다 조금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 햇빛과 바람이 들게 한다. “고팡”은 된장이나 간장만 말고 곡식과 여러 먹을거리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또한 제주 초가의 자연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돌과 흙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움의 조화일 것이다. 그리고 초가의 보이지 않는 대문역할을 했던 정낭과 정주석이 있다. 정낭이 정주석<사진3>에 들은 가지런히 걸리고 하나만 비껴 걸린 것으로 보아 집 주인은 그 근처에 잠깐 볼 일을 보러 나간 듯 한 초집입니다. 제주도의 전통적인 생활풍속이나 모든 민속은 이 초집의 구조로부터 생겨났고, 이 초집의 구조 속에서 유지되며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 초집이 없어진다는 것은 제주도의 전통적인 생활문화와 특색 있는 민

2) 진성기, 제주민속박물관장, 제주의 생활문화, <http://www.jtg.co.kr>참고

속이 깉그리 없어져 버려짐을 말한다. 이는 제주의 삼무(三無)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제주 전통의 아름다움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듯 돌과 흙과 나무와 억새풀 그리고 초가 앞에 펼쳐지는 수평선 너머의 바다와 하늘은 자연스럽게 제주민들의 무속신앙과 연결되어지게 된다.

이렇듯 제주의 돌문화는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자연관을 바탕으로 한 무속신앙의 주술적 소통은 제주민들의 일상이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를 통해 살펴 볼 수가 있다.

1. 생산성의 돌문화

제주의 돌문화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생산성의 돌문화이다. 제주사람들이 자연적 조건을 어떻게 이용하여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는가를 생산력과 관계해서 살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 발담<사진4>

밭의 돌을 이용하여 축조한 담이다. 발담은 막돌로 허튼쌓기를 한다. 밭과 밭의 구역을 나누고 마소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방풍의 기능을 한다.

2) 원담<사진5>

‘개’, ‘원’ 이라고도 하며 마을 공동체의 어획구역공어획구역이다.

3) 산담<사진6>

애초 산담은 마소가 무덤에 들어 봉분을 훼손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되었고, 후에 화전(火田)에 의한 불의 번짐을 막기 위해 쌓았다. 음택(陰宅)의 경계표 역할도 한다.

4) 돌테<사진7>

제주 땅의 성질은 뜨고 메마르며 암반 위에 얇게 흙이 깔려 있기 때문에 소와 말을 뛰게 하여 뿌린 씨앗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밭을 밟아야 한다. 돌테는 이때 함께 사용하는 현무암으로 만든 원통형의 돌이다.

5) 돌가마(노랑굴, 검은굴)<사진8>

제주도에서는 돌과 흙을 그대로 사용하여 가마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돌은 제주도의 화산폭발에 의한 용암석이어서 내화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마는 사람이 허리를 굽혀 서 있을 정도의 높이로 낮으며, 제주도 지역에서 사용되는 용기토인 현무암토는 소지 자체의 강도가 잦아서 기물 재임을 높게 하지 못하였다.

노랑굴은 제주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릇들(항아리, 허벅, 병 등)<사진9>을 구워 냈던 가마를 말한다.

검은굴은 한때 질그릇과 오지(반오지)그릇은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 속에 함께 자리했다. 이런 그릇들을 구웠던 노랑굴과 더불어 검은 굴은 시루, 지새허벅, 지새항 등 일상생활 용기들을 구워냈던 가마이다. 현재에도 제주에서는 제주전통 용기의 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용기토를 응용한 다양한 작품들이 현대 도예의 다양성을 통해 표현되어지고 있다.<사진10,11,12,13,14,15,16,17,18,19,20,>

제주가마에서 주로 생산되었던 제품이 허벅이다. 제주도는 샘이 귀하다. 지하수가 해안에서 용출되어 식수를 여기에서 길어다 먹었다. 허벅은 제주도 특유의 형태를 가진 용기이다. 물을 길는 곳이 바닷가 바위틈이며 돌이 울퉁불퉁 덮인 길을 걸어야 하고 거센 바람이 불어서 다른 지방과는 방법을 달리한 식수운반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몸체는 둥근편이며 밑은 편편하며 부리는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다. 장방형 대바구니에 지고 나른다. 3) 허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물허벅

물을 길어 나르는 식수운반 용구이다. 몸체가 빗살무늬로 가득 장식되어 있으며 빗깍은 대개 붉다. 잔칫날의 여흥에서는 장단을 치는 악기로도 사용되었다. 이것을 '허벅장단'이라고 한다.

3) 강창언 · 이경효, 제주전통도예, 가시아히, 2000, p.61~63

(2) 술허벅

술을 보관하는 용기이다. 예전에는 집집마다 주부의 솜씨로 술을 만들었고 이것을 허벅에 넣어 보관해 놓고 조금씩 덜어내어 사용했다. 목이 길며 좁고 전이 있으며 술을 따를 때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고광에 저장한다.

(3) 씨허벅

씨앗 보관 용기이다. 물허벅에 금이 가서 사용하기 곤란한 때도 씨허벅으로 용도가 바뀐다.

(4) 죽허벅

죽을 쑤어 담는 허벅이다. 제주도 풍습에 사돈집에 초상(初喪)이 나면 팔죽을 쑤어 허벅에 지고 가서 위로하는 풍습이 있다. 이때 허벅을 이용하는 것은 먼 길을 운반하는데 편리하고 보온도 되기 때문이다.

(5) 오좁허벅

가마에서 좀 찌그러졌거나 물허벅의 부리가 상한 것, 금이 간 허벅을 땀질하여 사용했다.

이런 못생긴 허벅을 '송물다리'라고 한다. 금이 간 용기를 때우는 재료는 송진, 아교, 역청이 이용되었다.

(6) 착바지

대형 허벅이다. 이것은 소나 말 또는 마차를 이용하여 식수를 다량으로 운반할 때 사용하는 허벅이다.

품삿을 받고 중산간의 잔치, 초상 등의 큰일 때 물을 길어 나르는 대형 허벅이다.

(7) 대바지

여자 어린이용 허벅이다. 제주도의 여자 어린이들은 8세 무렵부터 물길는 일을 시작한다. 물을 길는 일은 여성 고유의 일로서 생명유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물'의 확보가 여성의 몫이라는 상징은 매우 의미가 깊다.

2. 생활성의 돌문화

생활성은 제주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세속영역의 돌문화이다.

1) 돌확<사진21>

돌혹이라고도 한다. 곡식을 빵을 때 쓰는 도구로 남방애 중앙에 박아 넣은 돌절구이다. 특히 마늘, 깨 등을 빵을 때는 남방애에서 분리해서 쓰다 삼베나 모시, 광목에 감물을 들이고자 할 때는 남방애에 끼워 사용한다.

2) 팡돌<사진22>

용천수나 봉천수에서 빨래를 하거나 물 걷는 도구를 올려놓을 때 썼던 돌로 납작한 자연석을 이용한다. 대개의 용천수나 봉천수는 3단으로 구성되어 각기 기능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상단은 식수터이고, 중단은 채소, 나물을 씻거나 빨래를 하기도 한다. 하단은 마소에게 물을 먹일 때 쓰는 곳이다.

3) 물팡<사진23>

물 걷는 허벅을 올려놓는 돌이며 용천수 솟는 샘터나 초가집 정지문 입구 등에 세워져 있다.

4) 정주석<사진24>

제주식 대문으로써 1m 남짓한 직사각형 현무암 석주에 구멍을 3개 내지 4개를 뚫고 마주보게 세운 후 커다란 정낭을 구멍 수에 맞게 걸친다. 정낭이 걸쳐진 모양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이웃 또는 방문자를 위한 암묵적인 소통 장치인 기능성 대문이다.

5) 불턱<사진25>

잠녀들의 쉼터로 바람을 막기 위해 둥그렇게 쌓은 돌담이다. 잠녀들은 이곳에서 험한 물질의 피로를 풀기로 하고 불을 피워 몸을 녹이면서 소리를 구워먹기도 한다.

6) 땃돌<사진26>

콩, 팥, 밀 등 곡식을 가루로 만들 때 쓰는 재분용 도구이다.

7) 통시디딜팡<사진27>

디딜팡은 변을 볼 때 사람이 발을 디딜 수 있게 만든 넓적한 돌이거나 사각형의 판석으로 만든 변기인데 구조적인 면에서 생태적 순환원리를 보여주는 돌문화의 명물이다.

8) 연자매<사진28>

마소의 힘을 이용하여 곡식을 정제했던 돌로서 마을의 요지에 만들어진 ‘물방’이라는 공동의 방앗간에 있었다.

9) 돌화리<사진29>

돌로 만든 화로로 난방용 열기구다.

10) 돛도고리<사진30>

돼지 먹이용 돌 밥그릇이다. 자연석 현무암을 원형과 사각형으로 마연하였다.

11) 놀굽<사진31>

겨울 준비를 위해 마소의 먹이인 건초나 땃감을 쌓아놓기 위해 놀 바닥에 깔아 놓은 돌이다. 자연석 중 평평한 돌을 모아 둥그렇게 기초를 만들어 지표면의 물로 인해 건초나 땃감이 썩지 않도록 통풍이 잘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12) 덩돌<사진32>

돌을 둥글게 만들어 마을 청년들이 오며 가며 힘자랑용으로 썼던 일종의 놀이기구이다.

3. 공공성의 돌문화

1) 지석묘(고인돌)<사진33>

탐라국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제주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는 도내 곳곳에 남아 있는 고인돌로 알 수 있다. 1700여 년 전 제주인들은 부족사회를 형성하여 집단거주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지배자 내지는 족장이 죽으면 거대한 돌 밑에 시신을 안장했다.

이처럼 지석묘는 고대인들의 무덤 양식의 일종으로 땅속이나 땅위에 돌로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올려놓는 무덤을 말한다.

지석묘는 우리나라 선사시대 무덤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함북지방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0000여 묘(墓)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4)

제주도 지석묘의 형식은 크게 매장부의 위치와 지석의 고임방식을 큰 분류기준으로 삼고 따른다. 형식 분류의 기준이 되는 매장부의 위치는 시신을 지하에 매장하는가 아니면 지상에 매장하는가에 달려있다.

다음은 지석의 고임상태이다. 지석의 고임상태는 곧 상석을 올리는 방식이 된다. 매장시설 상부에 지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구분이다. 이와 같이 매장시설 위치와 고임상태를 기준으로 제주도 지석묘를 구분하면 대체로 여섯 가지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형식은 지석 없이 상석이 지표에 바로 닿는 개석식 혹은 무지석식 지석묘로서 삼양동 지석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2형식은 남방식 유형에 속하나, 남방식에 비해 지석의 대부분이 제대로 다듬지 않은 할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석의 숫자는 3~10매로 그 예가 다양하다. 제3형식은 상석 한쪽이 들리어 하부 매장부가 지상에 드러나 있고, 그 좌우와 들리지 않은 뒤쪽에 지석이 고인 형식이다. 들린 부분의 모양은 대체로 아치형을 취하고 있다. 제4형식은 지석을 이중으로 고인 형식이다. 비탈면을 이용하여 한쪽을 작은 할석과 괴석을, 그리고 낮은 곳에는 판석을 고인 형식이다. 마지막 제6형식은 상석 밑은 완전하게 판석

4) 이청규, 제주도 지석묘연구(Ⅰ)-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지석묘군-, 탐라문화 제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1995, p25.

형 지석으로 에워싸 고인 형식으로 언뜻 보기에 는 지상에 장방형 혹은 원형의 석실을 만든 것처럼 보이는 형식이다.

탐라 태동의 숨결을 간직한 고인돌은 1700여 년 전 제주를 형성했던 선인들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인 발굴, 조사 작업과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경작지 정비작업이나 도로정비 등으로 하나 둘씩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2) 돌탑(거옥)<사진34,35>

돌탑은 마을 어느 한 방위에 어떤 불길한 징조가 비친다거나 아니면 어느 한 지형이 비교적 허(虛)하다면 그러한 허한 방위를 막아야 마을이 평안하게 된다는 속설에서 쌓아올린 탑이다.⁵⁾ 이는 육지부의 솟대가 갖는 기능, 즉 마을의 안녕과 수호, 풍농(豐農)을 위해 세운 것⁶⁾ 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종철은 ‘솟대란 길고 곧은 나무기둥 또는 석주(石柱)위에 새 모양의 조형물을 한 마리 또는 두세 마리 올려놓은 신간(神竿)으로 제주에서는 거오기·거액 등으로 불리워진다⁷⁾고 보고 있다.

제주의 자연마을에 이러한 기능을 가진 돌탑들을 가리켜 답(탑:塔)·거옥·가마귀·하르방·격대·방사탑 등이라 부르고 있다. 돌탑들은 구멍이 많은 현무암을 이용하여 원뿔이나 사다리꼴 등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돌탑 위에는 자연적인 새 모양의 돌을 세우거나 긴 나무에 새 모양을 만들어 붙이는 것, 돌로써 사람형태를 만들어 세운 것이 있다.

돌탑은 제주의 자연 마을의 인명, 가축,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 지리적으로 허(虛)·액(厄) 등, 굿은 것이 온다는 곳과 바닷가 마을에서 신원불명의 송장이 자주 들어와서 불길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사람들이 직접 돌탑을 쌓아 놓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방사용 돌탑들은 제주 사람들의 집단적인 정신세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⁸⁾

제주의 방사용 탑들은 주위에서 혼한 현무암을 이용해 쌓았는데 윗부분

5) 제주도, 제주의 문화재(증보판), 제주인쇄공업협동조합, 1998, p410

6) 주강현,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한겨레 신문사, 1996, p164

7) 이종철 外, 남녘의 벽수, 김향문화재단, 1990, p40

8) 강창언, 제주의 방사용 탑, 제주도사 연구 제4집, 1995, p163

에는 새나 사람의 형상을 세워 놓았다. 방사용 탑 자체가 마을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탑의 축조도 마을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마을이란 공동체 속에서 인명·가축·재산을 신앙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기술·인력 등은 마을 사람들이 부담해야 한다. 돌탑을 쌓기 전에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돌탑을 쌓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가정마다 1~2명씩을 정하고 불참 시에는 그에 맞는 곡물이나 돈을 내야 한다.

돌탑이 세워진 위치는 마을에서 가장 나쁘다거나 약한 곳으로 생각되는 곳이다. 돌탑이 쌓아질 때는 방사용 물질들이 사용되었다. 땅의 나쁜 것을 막기 위해서 돌탑 속에 돼지, 무쇠 술 등을 묻었다. 하늘에서 오는 나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형상이 갖춰진 돌이나, 인공으로 만든 까마귀, 석상 등을 돌탑 위에 세웠다. 제주의 방사용 탑은 직·간접적으로 손실과 재앙을 주는 액(厄)을 막아 인명, 가축,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입명(安心立命)을 누리려는 마을 사람들의 공동작업을 통한 조형물로서 제주도민들의 공동체적인 삶 자체를 찾아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에 와서 4·3 발생 50년 만에 4·3으로 웅이진 한을 풀고, 원혼들을 위무하는 상징조형물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다.⁹⁾

3) 돌하르방<사진36>

돌하르방은 ‘돌할아버지’의 제주어로서 1971년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하다가 문화재 명칭으로 채택한 이래 급속도로 확산된 것이다.

제주의 돌하르방은 육지부의 장승과 비슷한 기능을 갖는다. 장승은 전국적으로 분포된 민간신앙의 한 형태를 반영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마을·사찰·성문에 세워져 마을과 길, 성안을 수호하는 신으로 섬겨지는 목상, 석상의 일종이다. 그 형태는 나무기둥이나 돌기둥에 사람의 얼굴 모습 또는 귀면(鬼面)을 상부에 그리거나 조각하고, 하부의 몸통에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 오방위신장(五方位神將), 주장군(周將軍), 당장군(唐將軍) 등의 글씨가 쓰여져 있다. 또한 몸통 하단에 현 위치로부터 근처 도시까지의 거리를 표시한 장승도 있다.

이러한 장승은 흔히 마을 입구나 길가에 남녀 한 쌍으로 세워져 있는

9) 제주일보, 4·3 해원 방사탑 18일 제막식 평화의 섬 수호탑으로, 1998년 4월 17일

경우가 많고, 솟대 · 돌무더기 · 신목(神木) · 서낭당 · 입석 등과 함께 동제(洞祭), 신앙의 대상신이 된다.¹⁰⁾

돌로 만든 장승은 제주에서 돌하르방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칭으로는 우석목(우성목), 무성목, 벽수머리, 웅중석, 돌영감, 영감, 수호석, 수문장, 두룽머리, 동자석, 돌부처, 미륵 등 여러 가지로 불린다.¹¹⁾ 돌을 깎아 만든 사람의 형태, 곧 석상은 비단 제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멀리서 남태평양의 누쿠히바, 타히티, 피지, 이스터 등의 여러 섬에서 가까이는 한반도 육지부에 널리 분포하는 것들이다.¹²⁾

아무튼 이 돌하르방에 대한 인류사적이고 민속학적인 여러 각도에서 공통된 법칙은 찾아낸다는 것은, 널리 문화인류학적 조명을 거치지 않으면 어려운 일로 보아진다. 그러나 이 돌하르방은 제주 선주민이 역사적인 시련과 자연과의 투쟁에서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살아온 진취적인 인간상을 대변해 주고 있는 탐라 수호신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¹³⁾

4. 종교성의 돌문화

미르치아 엘리아데는 『종교사 개론』에서 인간은 돌을 돌로써 숭배한 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돌은 항상 어떤 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 행위의 도구로 사용되어왔다고 강조한다.

바위나 자갈이 경건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들이 어떤 것을 나타내거나 모방하기 때문이며, 어디인가에서 왔기 때문이다. 바위나 자갈이 신성한 가치는 이 어떤 것, 이 어디인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절대로 그들 존재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돌이 그 자신과는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돌을 숭배했다. 사람들은 돌을 숭배했거나, 영적 행위의 도구로서 또는 그들 자신의 방어나 사자의 방어를 위

10) 이종철 외, 전개서, 1990, p224

11) 주채(周采?), 제주도 돌하르방 연구의 몇 가지 문제점: 그 기능과 형태 및 계통-동몽골 다리강가 훈출로오와 관련하여, 강원대학교 사학회(1993), 강원사학 제9집, 도서출판 산책, p78

12) 진성기, 제주도 전설, 도서출판 백록, 1996, p895-897

13) 진성기, 전개서, 1990, p33

한 에너지의 중심으로서 이용했다. 그것은 제의와 관련된 돌의 대부분이 도구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돌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또한 소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쓰였다. 또한 돌은 종교적 기능보다는 주술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돌은 그 기원이나 형태에서 연유하는 어떤 신성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숭배되기보다는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자연석에서 신의 형상을 보고, 돌무더기에 공동체의 마음을 의지한다. 또한 영혼을 지키거나 시중하는 석상에서 위안을 느끼기도 한다. 사람들은 돌을 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믿음의 형태로 보았다. 그래서 돌은 개인의 주술과 공동체의 희망이 담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제주의 돌문화 중 새롭게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종교성이 깃든 돌문화일 것이다. 돌문화에 있어서 종교성은 공동체의 역사를 반영하며 재난이 많았던 땅 만큼의 신앙적 크기를 담고 있다. 종교성의 돌문화는 종교의례나 무속신앙과 관련된 돌문화로써 공동체의 신성영역에 해당하며 불교, 유교, 무교, 무속신앙의 돌문화로 세분할 수 있다.

1) 불교의 돌문화

동자복 미륵<사진37>과 서자복 미륵<사진38>, 화천사의 오불 미륵상<사진39>이 있으며, 우리나라 유일의 현무암 탑인 보물 제 1182호인 불탑사 5층 석탑과 존자암지부도 등 불교유적이 있다.

2) 유교의 돌문화

포제단, 공덕비, 선정비 등의 기념석비, 마애명, 무덤의 석물인 문인석<사진40>, 동자석<사진41> 등이 도내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3) 무교의 돌문화

동자미륵이 동광양 미륵당에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져 간 곳을 모르고 있다. 돌영감은 자연석의 형상석으로 서김녕 서문 하르방당<사진42>에 안치되어 있다.

인도에서부터 시작된 미륵신앙은 불교가 들어온 초기부터 중국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¹⁴⁾ 불교적 색채에다 토속 신앙의 결합된

14)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동아 원색세계대백과 사전 제12권, 1989, 동아출판사 p562

형태로 지금까지도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불교는 보다 민간적인 토속신앙에 의지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예부터 제주도 사람들은 “절 가듯이 당(堂)에 가고 당 가듯이 절에 간다.” 라는 말이 있었다. 더욱이 조선조를 거치면서 오히려 제주도의 불교는 쇠락을 거듭하여 별반 승려가 없었으니, 민간신앙의 의존도가 강했다.

미륵이 출현하는 연기설화는 대개 미륵들이 바다에서 건져서 물으로 올려진 것으로 채록되고 있다.<사진43> 함덕, 신촌, 서김녕, 화북1동 등 바닷가에 면해 있는 지역이 여기에 속한다.¹⁵⁾ 제주도민에 있어 바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언젠가는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죽음의 장소이다. 그러한 생과 사를 동시에 제공하는 바닷가에서 사람들은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륵의 출현을 갈망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륵이 낚시나 어부의 그물에 걸려서 그들 속으로 다가 오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어느 마을이고 마을을 구심점으로 하여 공동체 신앙의 거점인 본향당(本鄉堂)<사진44>이 존재하며 대대손손 마을 역사를 들려주는 본풀이가 전해진다. ‘본향’이란 마을의 수호신을 말하며, ‘본’ 근본, 본원, 내력을, ‘풀이’는 설명을 의미해, 결국 ‘본풀이’란 당신(堂神)의 근본을 풀이하고 설명한 살아있는 신화로서 마을 공동체의 생명을 상징한다. 이러한 본향당의 본풀이에 마을미륵이 등장한다. 이처럼 제주도민의 생활과 불교신앙과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4) 무속신앙의 돌문화

무속신앙이란 무당을 중심으로 하여 민간에서 전승되고 있는 종교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자연 환경을 통한 무속신앙의 문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섬이라는 자연적 한계성, 특히 거센 파도와 싸우며 살아야 하는 특수성으로, 다양한 무속신앙의 자취를 전체에 남겨 놓았다. 제주민속촌의 무속신앙촌에서는 이렇게 섬 전체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무속신앙의 양상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 점집, 심방집을 비롯하여 처녀당, 포제단, 미륵당, 해신당, 본향당 등이 있다. 전시가옥 : 심방집, 포제단, 해신당, 미

15) 주장현, 마을로 간 미륵 1, 1995, 대원정사 p17~18

특당, 본향단, 점집 등 공예방 : 점집 전시물 : 방사탑, 포제단, 해신당, 미륵당, 본향단, 동자석, 무구 등이 있다.

신앙상징의 석상들 중 특이한 것으로 고양어 또는 원숭이로 추측되는 돌코냉이는 십이지신 사상의 영향을 받은 듯한데 마을의 액막이로 썼으며 신엄중학교<사진45>와 제주대학교 박물관<사진46>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둥글고 긴 타원형의 돌에는 글씨 쓰여 있다. 돌문화공원에 소장되어 있다. 조천석은 조천의 뜻인를 우러러 뵈는다는 의미를 들어 재앙을 막아주도록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조두석이라 한다. 조천석은 원래 산지천 광재교 바로 남쪽에 섰아 있는 자연암 위에 세워져 있었다.

이 바위에는 ‘경천암’ 이라는 글씨가 바위 중간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조천석은 현재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참고사진



<사진>1. 돌과 초가집



<사진>2. 초집의 공팡



<사진>3. 정낭과 정주석



<사진>4. 발담



<사진>5. 원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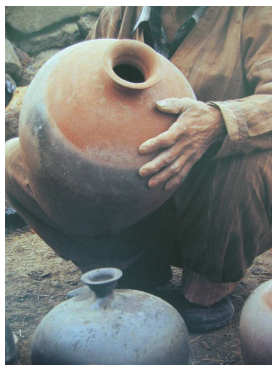
<사진>6. 산담



<사진>7. 돌테



<사진>8. 제주전통도예원 노랑굴, 검은굴



<사진>9. 제주전통도예원 작



<사진>10. 고영심. 제주돌 제주바람



<사진>11. 김남숙 작



<사진>12. 양재심 작



<사진>13. 허민자 작



<사진>14. 김청길 작(건조)



<사진>15. 조윤득 작



<사진>16. 허민자 작



<사진>17. 구자영 작



<사진>18. 허민자 작



<사진>19. 제주옹기마을 개랑가마



<사진>20. 김청길 작



<사진>21. 돌확



<사진>22. 팡돌



<사진>23. 물팡과 물허벅



<사진>24. 정주석



<사진>25. 불턱



<사진>26. 맷돌



<사진>27. 통시디딜광



<사진>28. 연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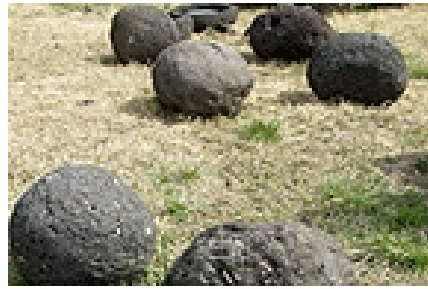
<사진>29. 돌 화리



<사진>30. 돛도고리



<사진>31. 눌굽



<사진>32. 둌돌



<사진>33. 제주시 용담 지석묘



<사진>34. 용수리마을 방사탑



<사진>35. 남제주 대정읍 거옥



<사진>36. 금능 석물원 돌하르방



<사진>37. 동복신미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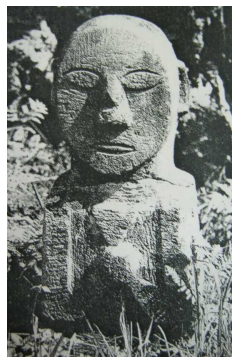
<사진>38. 서복신미륵



<사진>39. 오불(五佛)여래미륵



<사진>40. 문인석



<사진>41.동자석



<사진>42. 서문김녕 하르방당



<사진>43. 바다에서 올라온 윤동지 영감미륵



<사진>44. 와흘 본향당



<사진>45. 애월 신임중학교정문 앞 돌코냉이



<사진>46. 제주대학교 돌코냉이

II. 제주 무속신앙에 반영된 신앙석

제주도의 무속은 무속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신앙 내용을 가지고,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심방을 청하여 인간이 신에게 간접 기원하는 집단 의례 형식의 굿이나 심방 없이 인간이 직접 신에게 기원하는 개인의례 형식의 비념(비나리)으로 실연된다. 제주도의 무속신앙은 큰굿을 통하여 종합된다. 부분적으로는 굿이나 비념, 아니면 제사 형태<사진47>로 이루어지고, 의례와 전혀 상관없는 듯한 세시풍속 같은 데서도 무속신앙의 흔적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제주 사람들은 장례가 끝나면 '귀양풀이'를 하여 망자의 한을 풀어 주고, 유교식으로 치르는 제사 때에도 먼저 문신(門神)을 위한 문전제(門前祭)를 하며, 부엌<사진48>에는 조왕신(竈王神:부엌을 관장해 주는 신)에 제물을 올린다.

제주 무속신앙의 구조와 변화상을 살펴보지 않고 서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무속신앙의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그 영역이 워낙 방대해서 기초로서의 필요한 부분만을 다루는데 그친다.

제주의 무속신앙은 농경이전의 수렵채집민들의 종교는 초자연주의적인 것으로 그들이 사물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영(靈)이었다. 따라서 종교적으로 지칭하는 신과 같은 인간사를 지배하는 힘이라기보다는 개인 또는 집단과 관계된 동물이나 식물 또는 자연물의 일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쳐로서의 일정한 틀을 갖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큰 바위나<사진49> 숲 또는 숲속의 나무는<사진50> 모든 자연물들 가운데 가장 오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신령이 깃들여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큰 돌이나<사진51> 자연 상태의 숲과 나무에 대하여 여러 생각이나 도움을 의탁하거나 신성함과 청정함을 숭배하게 되었으며, 이 경우 대상으로 되는 자연물에 깃든 정령이 수렵채집민들의 신앙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숲에서 나온 농경민들에 있어서는 농경의 수행 등 삶의 방향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자연계, 즉 적당한 자연조건과 풍요로운 수확, 집단의 번영과 안녕을 주재하는 다양한 영역을 가진 신이 출현하게 된다. 이들 신들

은 자연의 질서를 부여하고 만물을 생성케하는 동시에 죽음을 관장하는 등, 농신, 수호신, 산신, 수신, 해신, 조상신을 비롯한 대소신이 그것이다. 이들은 각기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기능하나 어떠한 경우든 마을 또는 집단의 기원과 관련된 의례를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의례는 마을의 협동과 풍요, 안녕, 평화 등의 대가족(大家族)이나 마을 전체를 공동의 운명체로 묶는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의례 대상으로서 집단의 영원한 생명력을 갖는 신들이 기거할 거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신의 집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도 전하는 성황당이나 해신당, 산신당의 당은 각기 고유한 영역을 갖는 신들의 거처인 셈이다. 고대에 있어서 신들의 주거는 일반 주거의 건축에 비해 웅장하였으리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시의 유물을 보면 일상의 생활유물과 달리 신들에의 봉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예가 있음을 물론이다. 제주도는 한라산의 산과 해안으로 둘러싸인 섬 지역으로 이러한 자연조건하에서 살아 온 제주민의 삶 속에는 다양한 신앙행위가 존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당신앙과 칠성신앙을 들 수 있다.¹⁶⁾

먼전 당신앙은 제주도의 신당을 말하는데 제주도에서 마을을 수호신을 모신 신당이 300여 군데 당이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제주 풍속조를 보면, 「제주 풍속에 대체로 산, 숲, 냇물, 연못, 언덕, 물가, 평지의 나무나 돌이 있는 곳에 고루 신당을 만들어 놓는다. 그리하여 매년 설날부터 정월 보름까지 무격이 신독(神籙)을 받들고 나희(儺戲)를 행한다. 징과 북을 울리며 안내하여 동내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다 투어 재물과 곡식을 내놓아 곳을 한다.」

이러한 곳에 신격을 부여하여 모셔졌던 것이 무신상이다.

제주에서는 칠성신앙은 집안의 곡이나 집 뒷곁의 으스스한 곳에 모시는 신앙이라고 한다.¹⁷⁾ 하지만 한국 민간신앙으로 접근을 하면, 칠성 별이 인간의 길흉과 수명을 지배한다는 도교의 믿음에서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의 전통 신앙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지는 않는다.

16)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2001, p218~219 참조

17) 탁명환, 제주 사신(蛇神)신앙에 대한 소고, 한국문화인류학 제10집, 1978,

1. 제주도 무속신앙의 구분과 성격

무속이 제주인의 생활세계 및 정신세계를 강력히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무속의 신관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무속의 신관은 다신 다령적 실재관으로서 그 신들이 각기 만물의 운행과 인간의 삶에 관여한다고 믿는다. 소위 일만팔천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의 기능은 천지자연뿐 아니라 생업, 물고기, 호적, 육아, 치병, 심지어는 주거공간의 각 부분까지 관장하고 있어, 제주인의 일상적 삶은 도무지 무신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특정한 집안의 조상이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까지도 조상신으로 모시고 있어, 역사적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신격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 무속의 한 특징이라 하겠다.

여하튼 무속에서는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으며, 그 신이 각각의 기능대로 만물을 운행한다고 믿는다. 사람의 생사, 흥망, 화복, 질병 등이 모두 신의 의사에 따라 또는 분류기준에 따라 약간 다르다. 무신의 범위를 「진성기 제주무신궁」 <사진52,53,54>¹⁸⁾ 무속신앙 본무가본풀을 따르면 다음과 같다.

300여 군데가 넘는 신당을 중심으로 500여 편의 본풀이라는 무속신화와 18,000이라는 총신격을 대상으로 하여 검토해 볼 때 크게 그 계보를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첫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
둘째로, 땅에서 솟아나는 것
셋째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
넷째로, 인간사회에서 태어나는 것

물론 이렇게 천상계, 지하계, 해양계, 인간계의 네 구분은 제주도 무속 사회의 우주관의 표현과도 일치하는 것이겠으나, 이제 이러한 예는 한편 제주도민의 문화권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¹⁹⁾

18) 진성기, 제주무신궁, 탐라인, 1999

19) 진성기, 전게서, p15

1) 일반신

일반신이란 천지, 일월, 산해, 생사, 질병, 농경, 어로, 빈부, 등 자연 및 인간생화의 일반적인 사상들을 관장, 지배하는 신으로서 전도에 일반적으로 공통한 신을 말한다. 이 일반신 중 아이의 사령을 차지하는 구삼승신과 변소의 신인 측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큰 곳 때 청해들이는 신이다. 일반신에 해당하는 각 신의 신면과 유래, 굿과의 연관성 등은 간략하게 소개하기 보다는 영역이 워낙 방대해서 신명의 명칭만 간단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땅차지, 산차지, 바다차지, 절차지, 인간차지, 수복의 신, 얼굴차지, 일월차지, 무조신, 서천꽃밭차지, 전상차지, 저승과 인간생명차지, 명부사자, 농신과 측산신, 가옥의 신, 문신, 부신, 봉엿신, 오방토신, 집안 출입로신, 울타리신, 난가리신, 구삼승, 측신으로 구분이 된다.

2) 당 신

당 혹은 신당<사진55>이란 자연마을 단위로 존재하는 무속신앙의 성소인데, 그 성소에 좌정한 신을 당신이라 일컫는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마을을 수호하는 당신 외에 기능을 달리하는 당신들이 한 마을에서 서로 다른 당에 좌정하여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마을마다 존재하는 당의 수가 일률적이지는 않으며, 따라서 마을 신앙민들이 모시는 당신의 수도 마을마다 다르다. 그러나 당의 수와 당신의 수가 비례하는 것 또한 아니다. 당은 하나일지라도 그곳에 모셔진 신이 여럿이거나 혹은 다른 기능을 하는 신들이 동시에 하나의 당에 좌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당신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락 전체의 사상(事象)을 관장하는 신 : 본향, 토지관, 토주관이라 부른다.

토지, 부라민의 출생, 사망 등 생활 일반을 관장, 수호하는 신이다.

(2) **육아 치병신** : 일렛당신, 일뤼또, 일레할망이라 부른다. 이 당이 따로 없는 부락은 본향당 안에 ‘불도’라는 명칭의 신을 따로 모셔 육아, 안질, 피부병의 치료를 기원한다.

(3) **사신(蛇神)** : 여드렛당신, 여드레한집, 토산한집이라 부른다. 집안에 모시는 사신은 일반신인 데 비해 여드렛당신은 당신으로서의 사신이다. 이 사신은 여신으로서 모계 계승의 형식이기 때문에 전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4) **어업신** : 해신당, 개당, 돈짓당의 신이다. 해신, 개하르바님 개할마님, 돈지하르바님, 돈지할마님과 같이 대체로 부부신으로 불린다.

(5) **수렵신, 산신** : 산신당의 산신대왕, 산신백관을 일컫는다.

(6) **농신, 목축신, 산신(産神), 마마시, 기타.**

3) 일가(일족)수호신

무속신앙의 목적이 제액초복인 이상, 일가 혹은 일족의 안녕과 행운을 위해 가계 단위의 수호신을 모시는 것은 민간신앙의 본질상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제주도에서는 일가수호신을 초상, 일월조상으로 부르는데, 혈연조상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현용준²⁰⁾은 일가(일족)수호신의 다양한 좌정 경위에 실례를 들면서 그 성격을 조령적 성격,²¹⁾으로 나누고 있다. 또 진성식은 일가(일족)에서 모신 조상들의 조상본풀이를 채록·보고하고 있는데²²⁾ 그 본풀이에 따르면 조상신의 내력은 각각 다르다. 첩으로 들어와 젊은 나이에 죽은 여인이 조상이 되는가 하면, 뱀이나 심지어는 바다에서 건져 올린 술까지 조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어떤 경우이든 일가(일족)수호신을 모신다는 것은 이 조상신을 잘

20)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21) 조령적 성격이란 일가(일족)수호신이 혈연조상의 성격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실제의 혈연조상 중에서 걸출한 선조를 수호신으로 모시는 경우, 특수한 직업을 시작한 선조를 수호신으로 모시는 경우, 혹은 혈연조상과 관련 있는 인물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2) 진성식,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위함으로써 일가(일족)의 안녕과 경제적 번성이 보장된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런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가(일족)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일가(일족)수호신의 영험이 알려지게 되면 그 신은 일가(일족)에 머물지 않고 마을 공동신이 되기도 하다. 현용준은 신의 성격상 유사점 및 두 신이 모두 ‘조상’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본래 일가수호신이었던 신이 자손들이 계승해감에 따라 그 신앙민이 증가하고, 공동체장인 당이 설치되게 되면서 드디어 마을 레벨의 신으로 전화한 것이라고 추정한다.²³⁾ 실제로 제주도 내 신당 중에는 당신의 성격이 일가수호신이었음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성산읍 신천리의 현씨일월당의 당신은 원래 현씨 집안의 조상신이었으나, 이미 마을 공동의 당신으로 제를 받고 있으며, 조천면 조천리 새곶할망당의 당신은 원래 안씨 집안의 수호신으로서 나주 김민창의 쌀을 지키던 사신(蛇身)이었고, 표선면 삼달리 본향당의 당신은 경주 김씨 집안의 조상신이었으나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삼달리의 본향당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예다. 하지만 민간신앙의 역사가 워낙 오래된 것이어서 현재 마을 당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신 중에 일가(일족)수호신으로부터 유래된 신을 명확하게 구별해 내기란 쉽지 않다.

4) 신당의 종류와 형태

당이란 신이 좌정해 있는 곳으로 관념하는 장소다. 제주도 마을마다 한 곳에서 10여 곳까지 있는 당은 그 기능이나 위치, 형태가 무척 다양하다. 조선조 문헌으로 짐작하건대 현재 파악되는 당의 종류나 형태는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전해오는 듯하다. 이렇듯 제주도 당의 유형이 역사적 변화에도 굴곡 없이 전승돼 왔다는 점에서 제주도 당신앙의 견고함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이제 제주도 당의 면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당의 기능, 당의 위치 및 형태, 당의 제일, 당신의 좌정 형태, 신체별로 분류하고, 특히 제주도 당신앙의 특이한 현상인 가짓당의 다양한 형태를 살펴본다.

당의 종류에는 제주도의 신당은 본향당, 일월당, 여드렛당, 해신당 산신당으로 나누어진다.

23) 현용준, 제주도 미신의 형성, 제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창간호, 1982.

(1) **본향당** : 본향당(사진50 참조)이란 한 마을을 수호하는 신이 정주한 곳이며, 마을의 신앙민이 제를 올리는 제장을 말한다. 신앙민은 흔히 ‘본향’ 혹은 ‘큰당’으로 부르기도 한다. 본향당은 전통적으로 마을 단위마다 하나씩 있었다.

전통적으로 본향당은 마을 신앙민의 집단적 참여 속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곳이 행해졌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 비념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2) **일뤼당** : 일뤼당(사진43참조)의 명칭은 제일일 매 7일(7일, 17일, 27일)인 데서 유래하면, 당신의 명칭도 일뤼또, 일뤼할망이라 하며 모두 여신이다. 이 당신의 기능은 육아, 치병인데, 주로 아이들의 복통, 피부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피부에 생기는 병을 제주도 방언으로 ‘허물’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일뤼당신을 허물할망이라고 부르는 곳도 많다.

(3) **여드렛당** : 여드렛당의 명칭은 제일일 매 8일(8일,18일, 28일)인 데서 유래하며, 당신의 명칭도 여드레또, 여드레할망이라 한다. 이 당은 표선면 토산리의 여드렛당이 기원이라고 하며, 사신(蛇神)을 모시는 당이라고 한다. 이 당의 당신은 모계를 통해 계승된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성의 결혼에 의해 여드렛당의 분포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4) **해신당** : 해신당<사진56>이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당으로서 주로 개당, 돈짓당, 남당, 해신당, 등으로 불린다. 이 당의 당신은 당의 명칭에 따라 개하르바님, 개할마님, 돈지하르바님, 남당하르바님, 남당할마님 등으로 불린다. 한림읍 수원리에는 ‘영등당’이라는 명칭도 있었으나, 현재는 폐당된 상태이다.

(5) **산신당** : 산신당은 산신을 모신 당으로서 당신은 산시또, 하로산또, 산신백과등으로 불린다. 주로 목축관련 신앙민들이 다니는 당이다. 과거에 제주도에서 목축이 성했을 때는 소나 말을 기르는 사람들이 목축업의

변성을 기원하는 산신당의 수도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현재는 본향당신이 산신당의(한라산신)인 경우를 제외하면 독자적인 기능을 드러내는 산신당은 제주시 영평동의 산신당과 구좌읍 송당리의 산신당 정도가 남았을 뿐이다.

5) 당의 위치 및 형태에 따른 분류

마을의 공간적 규모 내지 주택지가 확대되거나 마을의 중심이 이동함으로써 원래 마을로부터 떨어져 있던 당이 마을 안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현재 마을 가운데 당이 위치하거나 심지어는 주택에 면해서 당이 위치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사회변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이 그 자리에 존속되고 있는 사례다.

사회변화의 와중에서도 당이 파괴되지 않고 존속되고 있다는 데서 제주도민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당신앙의 일면을 엿보게 된다.

(1) 신목형 : 신목을 중심으로 당을 이룬 것을 말한다.(사진44 참조)
대개는 오래된 나무로서 가지가 많이 뻗어 넓은 공간을 가려 주는 나무는 팽나무가 대부분이다. 제주도에서 보호가치가 있는 오래된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는데, 당의 신목이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가 많다.

(2) 굴 형 : 굴(窟)형은 자연동굴을 신당(사진55 참조)으로 삼은 것인데, 이런 바위굴 형태는 화산섬인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다. 굴이라고는 하나 길게 이어진 형태는 아니며 바위굴 정도다. 제주도 방언으로는 이런 형태의 굴을 ‘궤’ 라고 한다.

(3) 바위형 : 바위 자체를 당으로 삼거나 바위에 의지해 당을 이룬 경우, 혹은 바닷가 넓은 암반을 당으로 삼은 경우다. 성산읍 종달리의, ‘생개납돛깃당’ (사진49 참조)이 나 서귀포시 대포동의 ‘즘녀당’ 은 바닷가에 돌출한 바위를 당으로 삼은 것인데, 바위 곁에 있는 조그만 나무를 신목으로 삼아 거기에 지전물색을 걸기도 한다.

(4) 당집형 : 당집형은 당집을 지어 그곳을 당으로 관념하는 경우다.(사

진47 참조) 이 경우에는 당집 주변에 수목이 우거진 경우도 있지만, 신앙민들은 수목이 있는 공간을 제장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당집 안의 구조는 다양하다. 간단하게 제단만 만들어져 있는 곳도 제단 위에 ‘본향지신위’라는 위패를 모신 곳도 있다. 또 신상을 만들어 모셔 놓고 그것을 신체로 관념하기도 한다.

(5) **담 형** : 기본적으로 당에는 제주도 특유의 돌담(사진56 참조)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의 형태에서 담형을 따로 분류하는 것은 신성한 공간을 상징할 만한 신목, 신석, 당집, 등이 전혀 없이 다만 돌담으로만 이루어진 당을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형태의 당은 신체로 삼을 만한 것이 없는 곳에 당을 마련할 경우 돌담을 쌓아 그곳이 신성한 제장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6) **복합형** : 앞에서 당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분류했지만, 각 당이 한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신목형의 당에 반듯하게 돌담을 쌓은 경우도 있고, 역시 신목형의 당이지만 당집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또 다른 형태의 당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신앙민들은 당신이 좌정해 있다고 관념하는 곳, 실제 제의가 행해지는 장소를 당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2. 무속신앙 대상 신앙석의 종류와 특성

제주 돌문화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장하고 있는 무속신앙 대상에 대해 중심에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다고 할 수 있는 무속신앙이 내재한 신앙대상의 돌문화이다. 제주 무속신앙에 내재하고 있는 신앙 상징으로서의 돌은 장묘석(문인석, 동자석, 지석묘), 돌탑, 거옥, 돌하르방, 무신상, 당신상, 미륵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무속신앙 상징의 신앙석은 제주도 무속사회에서 신격으로 섬겨 온 전통적인 석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석상들은 일반적인 석상이나 초상화와는 달리 종교적인 선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무속문화의 참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석

상은 제주의 자연관과 동일하게 변화 발전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자연에 부여된 신격의 형상이 차츰 그 형상이 인격에 투영되면서 정형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 장묘석: 고인돌, 문인석, 동자석

(1) **고인돌** : 제주도의 고인돌<사진57>은 한반도와는 달리 청동기시대가 아닌 탐라시대에 만들어 진 거석문화유산으로 북방식·남방식·개석식(무지석식)으로 구분된다. 이곳 상예동과 색달동의 지석묘는 남방식·개석식 고인돌형식이며 축조시기는 대략 탐라시대 전기(A.D 1~300)년경이다.

제주시 용담동 일대에는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구내의 지석묘를 비롯해서 형태와 크기가 다른 5기의 지석묘가 분포되어 있다. 지석묘는 우리나라 선사시대에 해당되는 청동기시대의 무덤으로 돌멘 혹은 고인돌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돌배하는 전설도 간직하고 있다. 발굴 조사된 이곳 지석묘의 내부에서 돌도끼, 민무늬토기 조각 편들이 수습되기도 했다. 외부의 모양은 시신을 안치하도록 판자모양의 돌을 사용하여 석실을 만들고 그 위에 큰 돌을 올려 완성했다. 재료는 모두 현무암으로 육지에 있는 지석묘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 내에 확인된 것은 60기. 원형대로 보존된 것은 30여기가 남아 있다.

제주시내의 고인돌 소재지는 속칭 '새정드르'와 '먹돌새기' 등 용담동 일원, 제주국제공항 부근, 삼양동과 오라동 등이며 도내 전체적으로는 애월읍 광령리와 하귀리, 남제주군 대정읍, 안덕면, 가파도 등지에 고인돌이 분포되고 있다.

(2) **문인석, 동자석** : 제주의 석인상은 대부분 무덤<사진58>을 중심으로 하여 분포되어 있다. 석인상은 무덤의 영혼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기능하기 때문에 당대의 조상숭배사상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제주 무덤의 문인석, 동자석들은 형식적으로는 유교문화를 대변하는

의례조각으로서 왕릉의 문인석, 무인석, 석양, 석마, 망주석, 등과 같은 유교조각에 속한다.

제주 무덤의 문인석, 동자석<사진59~64>은 한반도부와 마찬가지로 특히 조선후기에 많이 만들어졌다. 이 석인상들은 분명 그 기능이나 형상이 왕릉·사대부묘의 석인상에서 출발한 것으로 제주에 부임해온 목민관이나 유배온 정객에 의해 유입되어, 제주의 민간신앙과 관련된 자생적인 돌문화인 기자석, 동자미륵, 신당의 당신상 등과 만나면서 오늘날 전해오는 독특한 양식의 제주석상으로 발전한 것이다.

제주 무덤의 장묘석(석인상)들을 크게 분류해 보면, 문인석, 문인석+동자석의 혼합형태, 동자석으로 나눌 수 있다. 제주 무덤의 석인상에는 무인석을 찾아보기 힘들며, 동자석이 많은 것이 큰 특징이다.

또 제주의 석인상에는 양식의 발전과정에서 타종교와 습합된 면모도 찾을 수 있다. 비록 유교의 강도 높은 탄압이 있었다고 하나 민중들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신앙을 버릴 수 없었기에, 석인상 곳곳에는 불교, 무교, 민간신앙의 요소가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20세기초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십자가를 든 동자석이 등장하기도 한다.

동자석에는 제주의 토착적인 미의식이 담겨있다. 또한 그 모습에서 고난의 연대를 걸어온 제주 선인들의 미학적 호흡이 절실하여 가장 제주적인 석인상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동자석, 동자상, 지신, 무석, 자석(子石) 등으로 불리우는 데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²⁴⁾

동자석은 제주도에 흔한 현무암으로 제작되었는데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단순화된 것도 많이 볼 수 있다. 크기 또한 다양한데 96.0cm(덕수리 동자석)에서부터 33.0cm(삼양동 동자석)까지 조사되어 있고 시기는 보편적으로 1700~1800년대의 것들이 많다. 동자석은 신체 중 많은 비율을 얼굴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얼굴의 이목구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본다. 얼굴 모양도 눈이 가로선 일자(一字)이면 입도 일자(一字)형식이며, 눈이 타원형이면 입도 타원형과 비슷하게 나

24) 강창언, 제주의 동자석연구-분포와 형태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1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1990, p143

타난다. 또한 음각이면 음각, 양각이면 양각이나 반양각으로 처리하는 일관성도 보이고 있다. 이는 얼굴을 표현하는데 있어 성격, 마음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어 동자석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²⁵⁾

동자석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측면을 보면, 동자석 자체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형상이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무덤가에 석상을 세우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주로 특수한 계층이나 고위층에 한정되어 있다.

제주도에 있어 동자석은 남녀나 계급적 구분이 없는 서민적이라는 데서 큰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동자석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토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외적인 면에서 동자석은 제주도인들의 신앙적인 면에서 발단되어 만들어지고 조상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서 세워져 왔다고 본다. 형상을 통한 세부적인 면을 보면, 토속적, 샤머니즘적, 무속적, 불교적, 유교적인 면 등이 가미되어 있다고 본다.

둘째, 내적인 면에서 지신이라 하여 그 터에서의 신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일들은 묘를 옮길 때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주검을 옮겨도 동자석은 그냥 둔다. 이러한 사실은 동자석은 현존하는 무덤에서의 신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현재하는 인간과의 관계이다. 즉 낙태(落胎)를 요하는 경우나 몸 쓸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하나의 방법으로 동자석의 어떠한 부분 일부를 잘라다 삶아 그 물을 먹으면 된다는 예이다. 넷째, 영혼을 받드는 외적인 형상을 통한 영적인 면에서의 동자석이다. 꽃 · 술병 · 술잔이나 어떠한 물건 등은 주검이 영혼을 모시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이점이 육지부의 장군석, 문인석 등의 석상이 주검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것과 다르다. 다섯째, 반드시 2묘가 마주 보거나 묘를 향해서 서 있다는 것이다. 전자인 경우는 본토나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지만 후자인 경우는 보기 드문 예이다. 즉, 주검의 영혼과 마주보고 있는 것인 서민적인 일이

25) 강창언, 전계논문, 1990, p172

라 생각된다. 여섯째, 남녀의 상으로 나타나는 예이다. 남녀관계는 머리 모양에서나 어떠한 기호(+,-)나 꽃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신으로 본다면 하늘과 땅의 신으로 볼 수가 있다.

2) 돌탑(거옥,방사탑)<사진65,66>

제주의 자연마을에 이러한 기능을 가진 돌탑들을 가리켜 **답(탑:塔) · 거옥 · 가마귀 · 하르방 · 격대 · 방사탑** 등이라 부르고 있다. 돌탑들은 구멍이 많은 현무암을 이용하여 원뿔이나 사다리꼴 등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돌탑 위에는 자연적인 새 모양의 돌을 세우거나 긴 나무에 새 모양을 만들어 붙이는 것, 돌로써 사람형태를 만들어 세운 것이 있다.

제주의 방사용 탑들은 주위에서 혼한 현무암을 이용해 쌓았는데 윗부분에는 새나 사람의 형상을 세워 놓았다. 방사용 탑 자체가 마을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탑의 축조도 마을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마을이란 공동체 속에서 인명 · 가축 · 재산을 신앙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 기술 · 인력 등은 마을 사람들이 부담해야 한다. 돌탑을 쌓기 전에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돌탑을 쌓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가정마다 1~2명씩을 정하고 불참 시에는 그에 맞는 곡물이나 돈을 내야 한다. 돌탑이 세워진 위치는 마을에서 가장 나쁘다거나 약한 곳으로 생각되는 곳이다. 돌탑이 쌓아질 때는 방사용 물질들이 사용되었다. 땅의 나쁜 것을 막기 위해서 돌탑 속에 돼지, 무쇠 솥 등을 묻었다. 하늘에서 오는 나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형상이 갖추어진 돌이나, 인공으로 만든 까마귀, 석상 등을 돌탑 위에 세웠다. 제주의 방사용 탑은 직·간접적으로 손실과 재앙을 주는 액(厄)을 막아 인명, 가축,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입명(安心立命)을 누리려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작업을 통한 조형물로서 제주도민들의 공동체적인 삶 자체를 찾아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에 와서 4·3 발생 50년 만에 4·3으로 용이진 한을 풀고, 원혼들을 위무하는 상징조형물로서 다시 태어나고 있다.²⁶⁾

26) 제주일보, 4·3 해원 방사탑 18일 제막식 평화의 섬 수호탑으로, 1998년 4월 17일

3) 돌하르방<사진67,68>

제주시 삼성혈과 관덕정의 돌하르방은 다른 지역의 돌하르방보다 몸집이 크고 근엄한 표정으로 권위를 앞세운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기념품으로 알고 있는 돌하르방은 모두 이 제주목의 돌하르방을 모델로 삼고 있다.

대정의 돌하르방은 다른 지역 것보다 키가 작고 온순한 인상이다. 눈은 안경을 낀 듯 튀어나오거나 윤곽만 새겨져 있는데, 어떤 경우든 눈동자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코도 가름하여 제주시 돌하르방의 몽툰한 주먹코와는 많이 다르다.

정의현의 돌하르방은 성읍민속마을 동서남문에 각각 4기씩 있으며, 대정의 것들보다는 크고 제주목 그것들보다는 작는데 둥글넓적하고 단순한 편이다. 가름하게 내리뻗은 코는 대정 것과 비슷하지만 게슴츠레한 눈과 선 하나로 그어져 있는 입모양은 그저 덩덤하거나 무뚝뚝해 보인다. 귀는 작으며 손은 윤곽만 알아 볼 수 있을 정도이고 옷의 형체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돌하르방의 형태는 대체로 병거리형모자, 부리부리한 왕방울눈, 큼지막한 주먹코, 꼭 다문 입, 배 위 아래로 엮은 두손의 모습을 하고 있다. 돌하르방의 평균 신장은 제주 187cm, 성읍 141cm, 대정 134cm이며, 제작 연대는 1754년(영조 30)경으로 추측된다.

이 석상을 성문 앞에 세워놓으면 수호신적, 주술종교적, 경계금표적기능을 지녔듯이 육지의 장승과 같은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4) 무신상<사진69,70>

무신상이란 무당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는 조소에 의한 목상, 석상이 있고, 그림으로 그려진 무신도 에서도 그 신상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무신상”이란 제주도 무속사회에서 신격으로 섬겨 온 전통적인 석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신상은 일반적인 석상이나 초상화와는 달리 종교적인 선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무속문화의 참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상은 제주의 자연관과 동일하게 변화 발전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자연에 부여된 신격의 형상이 차츰 그 형상이

인격에 투영되면서 정형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5) 당신상

'제주무신궁'이란 제주민속박물관 구내에 야외 전시로 있는 '신들의 궁전'을 말한다.<사진71> 이 궁전에는 제주도내의 여러 곳의 당신상 143위가 모셔져 있다. 이러한 당신들은 각 마을의 '할망당'이라는 신당에, 특히 단골(무속사회의 신앙인)들에 의하여 받들어 모셔지고 있다. 그리고 마을마다 단골들은 자신들의 길흉과 생로병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당신상이 보살핀다고 생각했다.

여기 '제주무신궁'에 모시여진 143위의 신상은 제주도 자연마을 동네의 신상 가운데서도 특징 있는 신상으로 선정된 것이라 할만 하며, 그 근거는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의 전거에 따른 것이다.²⁷⁾

제주 당신들은 먼 옛날 이름 없는 석공이나 마을 사람 누군가가 제작했을 것이다. 무른 현무암을 금방 똑딱 깎고 거친 표면은 따로 힘들여 닦질 않고 그대로 질감을 살렸다. 자연과 인간의 만남'을 자연스런 인간 형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고나 할까? 그러나 경건한 마음을 심었기에 현대의 어느 조각가가 흉내낼 수 없는 신성함을 담고 있다.

대부분 일본 등지로 유출돼 버리고 현재 남은 143기의 당신상을 한 군데에 모아놓은 곳이 있다. 제주시 삼양 3동에 있는 제주민속박물관. 관장 진성기씨는 40여년 간 제주도를 훑어 찾아낸 당신상들을 이곳에 정좌시키고 제주 무신궁'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다. 그는 당신상 각각의 유래에 맞게 제주 무속신앙 원래의 모습을 복원시켜놓고 있다.

현재 제주에는 섬 전체에 150기가 넘는 당신상이 있는데, 그중 143기가 무신궁에 있고, 화북동 윤동지 영감당에 1기, (사진30 참조) 화천동 화천사 뒤편에 5기, 대정읍 인성리에 2기, 그 외 몇몇 당집과 제주민속촌 등에 남아 있다.

윤동지 영감당에 있는 당신상은 보기 드물게 창호지로 옷을 해 입은 모습이고, 인성리에 있는 당신상은 방사탑 위에 모셔진 석상이며, 화천사 뒤편에는 푸른 이끼 옷을 해 입은 윤치 있는 모습이다.

제주에 당신상이 생겨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50여 년 전에

27) 진성기, 제주무신궁, 탐라인, 1992

생긴 것으로 보이는 돌하르방보다 훨씬 전부터 당신상은 제주를 대표하는 석상이었던 셈이다. 당신상은 일부러 기교를 부리지 않고도 신상의 모습을 매력 있게 표현했다. 돌에 윤곽선만 새겨 얼굴을 그려냈고, 얼굴을 제외한 몸뚱이는 현무암의 거친 질감을 그대로 살려 자연미를 드러냈다.²⁸⁾ 그저 옆집 할머니의 인자한 모습이요, 뒷집 아이의 천진한 얼굴이다. 숭배와 경외의 대상이기에 앞서 친근하고 천진하며 해학으로 가득한 천현의 돌의 미소를 하고 있다.

(6) 미륵<사진72,73,74>

인도에서부터 시작된 미륵신앙은 불교가 들어온 초기부터 중국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²⁹⁾ 불교적 색채에다 토속 신앙의 결합된 형태로 지금까지도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제주의 경우 불교는 보다 민간적인 토속신앙에 의지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예부터 제주도 사람들은 “절 가듯이 당(堂)에 가고 당 가듯이 절에 간다.” 라는 말이 있었다. 더욱이 조선조를 거치면서 오히려 제주도의 불교는 쇠락을 거듭하여 별반 승려가 없었으니, 민간신앙의 의존도가 강했다.

미륵이 출현하는 연기설화는 대개 미륵들이 바다에서 건져져서 물으로 올려진 것으로 채록되고 있다. 함덕, 신촌, 서김녕, 화북1동 등 바닷가에 면해 있는 지역이 여기에 속한다.³⁰⁾ 제주도민에 있어 바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언젠가는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죽음의 장소이다. 그러한 생과 사를 동시에 제공하는 바닷가에서 사람들은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륵의 출현을 갈망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륵이 낚시나 어부의 그물에 걸려서 그들 속으로 다가 오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어느 마을이고 마을을 구심점으로 하여 공동체 신앙의 거점인 본향당이 존재하며 대대손손 마을 역사를 들려주는 본풀이가 전해진다.

‘본향’이란 마을의 수호신을 말하며, ‘본’ 근본, 본원, 내력을, ‘풀이’는 설명을 의미해, 결국 ‘본풀이’란 당신의 근본을 풀이하고 설명한 살아있는 신화로서 마을 공동체의 생명을 상징한다. 이러한 본향당의

28) 유상철, 제주 돌문화의 으뜸 제주 무신궁, 중아일보, 2004년 3월 27일

29)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동아 원색세계대백과사전 제12권, 1989, 동아출판사 p562

30) 주장현, 마을로 간 미륵 1, 1995, 대원정사 p17~18

본풀이에 마을미륵이 등장한다. 이처럼 제주도민의 생활과 불교신앙과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윤동지는 ‘조상이 내게 오셨구나.’ 싶어 그 돌을 가져다 미륵으로 모셨다. 그러나 애기가 울어대고, 강아지가 짖어대는 바람에 미륵을 편히 모실 수가 없게 되자 지금의 미륵당으로 옮겨 따로 모셨다고 한다. 말하자면 ‘바다에서 온 미륵’인 셈이다.

이렇듯 ‘바다 미륵’에 관한 전설은 북제주군 곳곳에 남아있다. 김녕의 미륵당은 서문 하르방당, 윤동지 하르방, 미륵보살 하르방으로도 불린다. 옛날 김녕에 동·서문이 따로 있었는데, 서문 밖으로 미륵당을 옮기면서 서문하르방당이 되었다. 윤씨하르방이란 윤씨가 바다에서 건졌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김녕미륵은 일주도로변 아름다운 해변에 좌정하고 있다. 바닷가로 흘러내린 용암과 백색의 모래사장이 바닥이 들여다보이는 파란 바닷물과 조화를 이룬 곳. 바람막이 돌담을 거느린 미륵이 바다를 향해 정좌해 있고, 작은 나무 두어 그루가 해풍을 막아서 있다. 제주도에는 널린 용암 자연석이지만 이곳 사람들은 이를 굳게 미륵이라고 믿고 신봉한다. 이 서문하르방은 기자와 미륵신앙이 하나로 결부된 산육신(産育神)인 셈이다.

북제주 삼양에도 비슷한 전설이 남아 있다. 김침지라는 이가 어느날 잠자리에 들었다가 화들짝 잠을 깼다. 미륵먹돌이 선몽한 꿈을 꾸는 것. 이상하다고 여긴 그는 서둘러 꿈에 보인 곳을 찾아가 낚싯줄을 던지니 먹돌 하나가 걸려 올라왔다. 김침지는 먹돌을 품고 집으로 돌아와 알가름의 팽나무 아래에다 미륵으로 모시고 서물날(음력 11일과 26일)마다 제를 올렸다.

그 후 침지 집안은 우환이 사라지고 복이 넘쳤는데, 이를 전해들은 동민들도 그를 따라 미륵먹돌을 모셨다. 서물날 이 미륵돌을 건져 서물당이 되었으며, 이 때문에 서물 물때에 맞춰 제례를 올렸다. 지금도 나무가 우거진 돌담 안에는 제단이 놓여져 있고, 미륵먹돌은 제단 밑에 묻혀 있다.

북제주 화북의 미륵 역시 바다에서 태어났으나 약간 다른 점이 있다. 바다에서 건져 ‘나에게 태인 조상’이라고 믿고 조상신으로 모셨더니 동지벼슬도 얻고 부자가 된 것까지는 같다. 그러나 마을 청년들이 소용없는 것이라며 미륵을 당 밖에 내버리고 불을 지르려고 했다. 그러자 돌미

특이 제 발로 걸어 나왔으며, 이 와중에 미륵의 몸 곳곳에 상처가 났다.

이 상처는 동민들에게 피부병으로 나타나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 뒤늦게 이를 깨달은 동민들이 다시 미륵을 정중하게 모시자 피부병이 씻은 듯 나았다고 전한다. 피부병을 다스리는 미륵불인 셈이다.

육지미륵의 원조는 역시 백제 무왕이 건설한 익산 미륵사. 미륵사 미륵은 삼존불이 솟구치면서 현현하였다. 이렇듯 육지의 미륵은 거개가 땅에서 솟구쳤다. 미륵출현의 기이한 대단히 비의(秘儀)적이라 꿈에 현몽하여 당신의 존재를 알린다. 그런데 제주 미륵은 땅이 아닌 바다에서 올라왔다. 미륵은 '미래불'이다. 석가모니 불타가 2500년 전에 중생을 제도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열어두는 것도 잊지 않았다. 도솔천 용화수 아래에서 중생제도를 행할 삼회를 기다리는 '마스터 플랜'이 그것이다.

불교가 개창된 이래 미륵신앙은 하나의 운동, 즉 미래불을 향한 기다림이었다. 그 미륵이 천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미래불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 땅의 민중이 미륵신앙을 대하는 모습은 포괄적이었다. 목잘린 불상, 목만 남은 불상, 내력도 모른 채 발을 갈다가 얻은 불상, 더 나아가 단순한 돌덩이일 뿐인 바위, 그 것을 민중은 미륵이라고 믿어 왔다. 미륵불의 현신이 이처럼 다양한 나라가 또 있을까. 제주도 미륵은 이 다양성에다 '바다'를 보탰다.

땅과 달리 바다에서 미륵이 출현하는 방식은 해양문화사나 불교문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녀 가히 '물마루의 세계관'이라 이름할 만하다. 물마루는 수평선을 뜻한다. 수평과 수직의 세계관은 다르다.

한국문화의 기본 신앙 격인 산신신앙의 산은 수직적이다. 단군 할아버지가 신단수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당수나무에 빌면서 '설설이 내리소서.' 했을 때도 수직적 강신은 금방 확인된다. 제주도에도 한라산에 오르면 이런 산신이 있다. 이런 바다 미륵을 말하자면 제주읍성의 동·서문 밖에 1기씩 남아 있는 미륵을 빼놓을 수 없다. 바로 지금의 제주시 동편 건입동과 용담동 한두기(大甕浦口)가 그곳이다.

마을에서는 이 미륵을 일러 미륵돌미륵, 미륵부처, 혹은 서자복미륵, 동자복미륵 등으로 부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해륜사(海輪寺)를 일명 서자복사, 만수사(萬壽寺)를 일명 동자복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미륵명칭이 유래했음직하다. 지금은 민가에 둘러싸여 있지만 제주시 한두기포구와 제주항이 굽어보이는 건입동 쪽에 위치해 지금까지 거친 제주 바다를 지키고 있는 중이다.

망망대해를 오가면서 배를 기다리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은 한결같이 물마루에 모인다. 물마루에 배가 떠올라야 그 지루한 기다림이 끝나기 때문이다. 누구나 미술시간에 수직과 수평의 구도를 배웠으리라. 바다에서는 물마루의 수평선 하나가 다른 모든 구도를 압도한다. 그 수평은 평온한 것 같지만, 태풍이라도 거느리면 노도로, 해일로 거칠 게 없는 ‘파문’을 일구기도 한다.

이런 ‘물마루의 철학’을 이해하는 일이야말로 바다를 이해하는 첩경이다. 세계의 수많은 모험가와 항해자들이 목을 매면서 지켜보았을 그 물마루를 바라보면서 제주민들은 바다 미륵을 건지고 있었던 셈이다.

3) 무속신앙 대상 신앙석의 조형분석

제주 문화의 특색을 돌의 문화라고 부르고 있듯이, 돌은 제주도의 향토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자원이다.

문화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인간이 자연환경의 자극에 대응 내지 적응하는, 그리고 지역의 자연이 주는 생활자료를 생존을 위해 활용하는 편익스러운 장치로서 일체의 생존생활기제를 포함하고 있다.

결국 환경의 함수로서 토지(자연)와 그 주민과의 관계에서 소산된 삶의 방편이 되는 일체의 생활양식이라고 볼 때³¹⁾ 제주에서의 돌은 물리적 대상물로서 단순한 자연물의 일부가 아닌 삶 자체로서 제주민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제주에서의 돌은 제주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신앙석의 돌문화는 제주민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민의 현재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무속의 정신세계의 깊은 곳에 감춰 있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다. 그 무성한 아름다운 신화들과 전설들이 세계가 제주 돌 문화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척박한 화산회토를 일구며 살아온 제주사람들은 돌에서 태어나 죽어서 돌밭에 묻힌다. 돌로 집을 만들고 성도 쌓았다. 생활도구를 만들어 쓸

31) 송성대, 문화지리학 강의, 환경과 문화, 1994년, 범무사 p30.

정도로 다양한 돌 문화를 창출해 냈다. 제주사람들에게 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제주 곳곳에 널려진 기기묘묘한 돌 형상과 돌하르방, 동자석, 돌담 등의 돌 문화는 오랜 옛날부터 예술인들이 즐겨 찾는 작품의 소재다. 영실 기암을 비롯한 용두암, 외돌개 등 기암괴석은 단순히 자연물상으로서의 돌이 아니다. 생명이 깃들어 있는 존재다. 이들 기암괴석은 제주탄생 설화는 물론 갖가지 전설과 신화를 품고 있어 제주민들의 심성을 풍부하게 해준다.

(1) 제주 신앙석의 조형원류

제주 선인들이 만들어낸 돌담과 문인석, 동자석, 돌하르방, 무신상(당신상), 미륵 그리고 초가와 올레 등 독특한 생활 문화는 예술작품의 주요 인자다. 거친 돌밭과 세찬 바람을 이기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온 섬사람들에게 돌 문화는 생존을 통해 획득한 눈물겨운 문화인 셈이다.

그런 문화의 속살을 끄집어내기 위해 예술인은 혼신을 다한다. 문학은 물론 그림, 사진, 음악 등 예술작품은 제주민들의 삶의 내력을 담아내는 다양한 장치가 됐다. 제주 태생의 많은 작가들이 다양한 석인상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고, '올레'를 주제로 올레와 제주초가의 미학을 다양한 예술장르로 표현하고 있다.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예술은 지역의 풍토와 시대상,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한다.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대자연의 오묘함이 예술인들의 정서와 부합해 독특한 문화예술을 창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화산섬, 제주. 돌 많고, 바람 많고, 여자가 많은 제주 지역의 문화예술이 삼다(三多)를 소재로 한 작품이 유난히 많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러한 자연환경들로 인하여 제주의 문화는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잉태하였다. 그렇다면 그 문화의 유입을 통해 바라본 돌 문화의 형성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분석 방법으로는 신앙상징 석상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얼굴형태와 모양을 부분적으로 사진으로 분석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얼굴의 모양과 형태에 관해서는 조용진³²⁾의 남방계의 얼굴형태의 이론을 바탕으

로 사진 자료를 첨부하여 분석을 하였다.

(2) 제주 신앙석의 조형원류의 특성에 관한 조합 비교 분석표

"제주 신앙석의 종류 및 조형적 특성에 관한 조합 비교 분석표"를 통하여 제주 신앙석의 조형적 특징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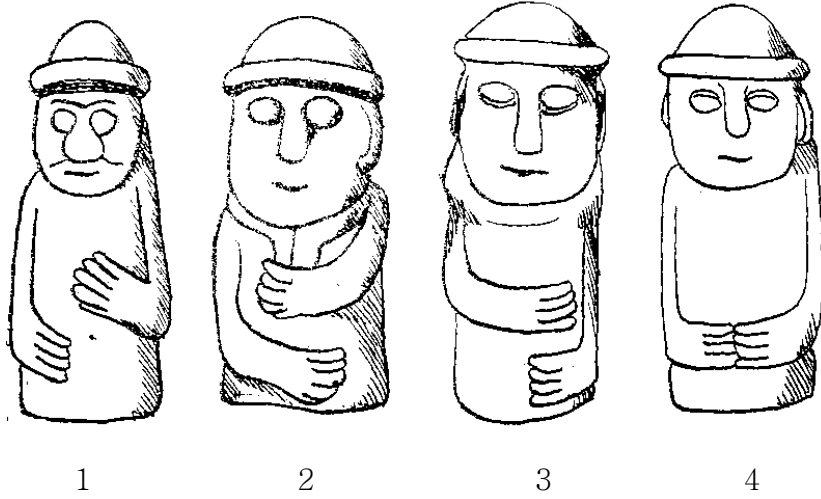
비교 분석표는 신앙석이 특징을 잘 나타내는 이목구비(耳目口鼻)와 석상의 조형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자료이다.

현장 답사를 통해 자료의 분석과 고찰을 하였지만, 신앙석의 방대한 자료를 연구자의 발품으로 모두 보충하지는 못했다. 부족한 부분은 기존의 선행 연구자들의 문헌을 바탕으로 참고하였으며, 연구에 대한 노력과 성찰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 작업을 통해 보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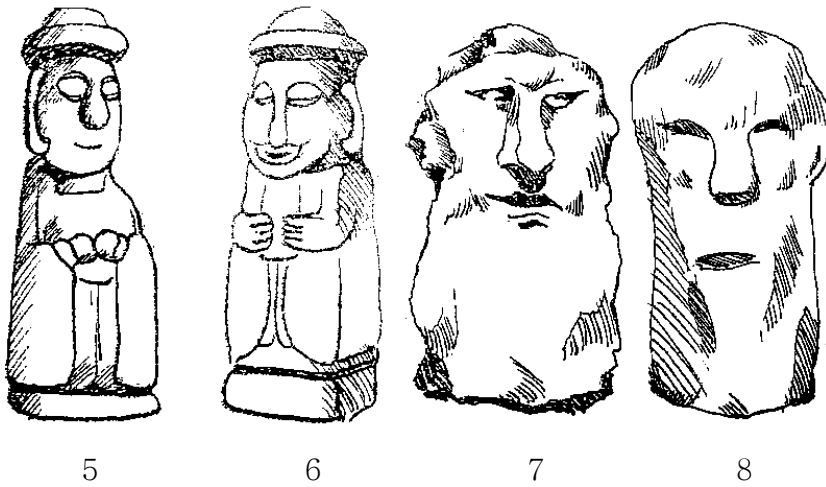
참고한 사진자료들은 각 신앙석의 특징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료들을 선점하여 참고 하였다. 그 외 사진자료들은 각 단락의 주제에서 부연 설명으로 보충하고 있다.

32) 조용진(趙鏞珍), 1950년 2월 19일 출생, 한국화가 및 대학교수, (남방계와 북방계의 얼굴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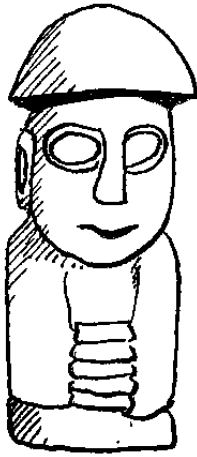
① 돌하르방(전신상)



③ 미륵(전신상)



③ 문인석(전신상)



9



10



11



12

④ 당신상(전신상)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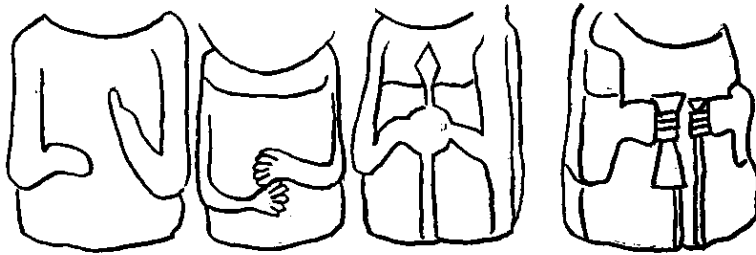


15



16

⑤ 몸체의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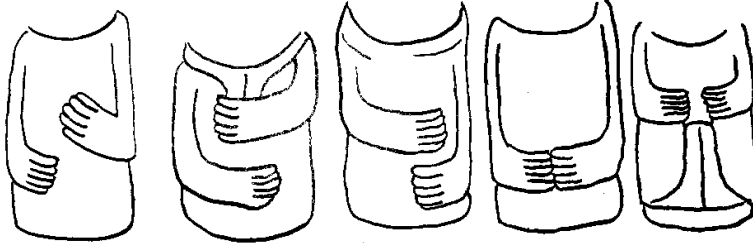


17

18

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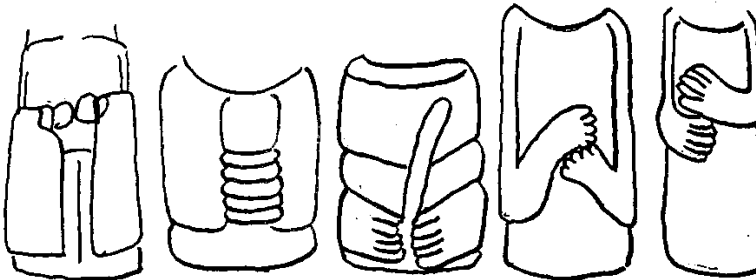
21

22

23

2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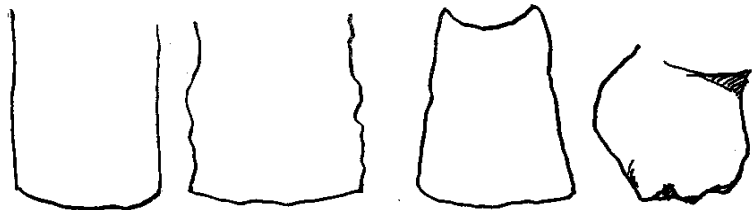
26

27

28

2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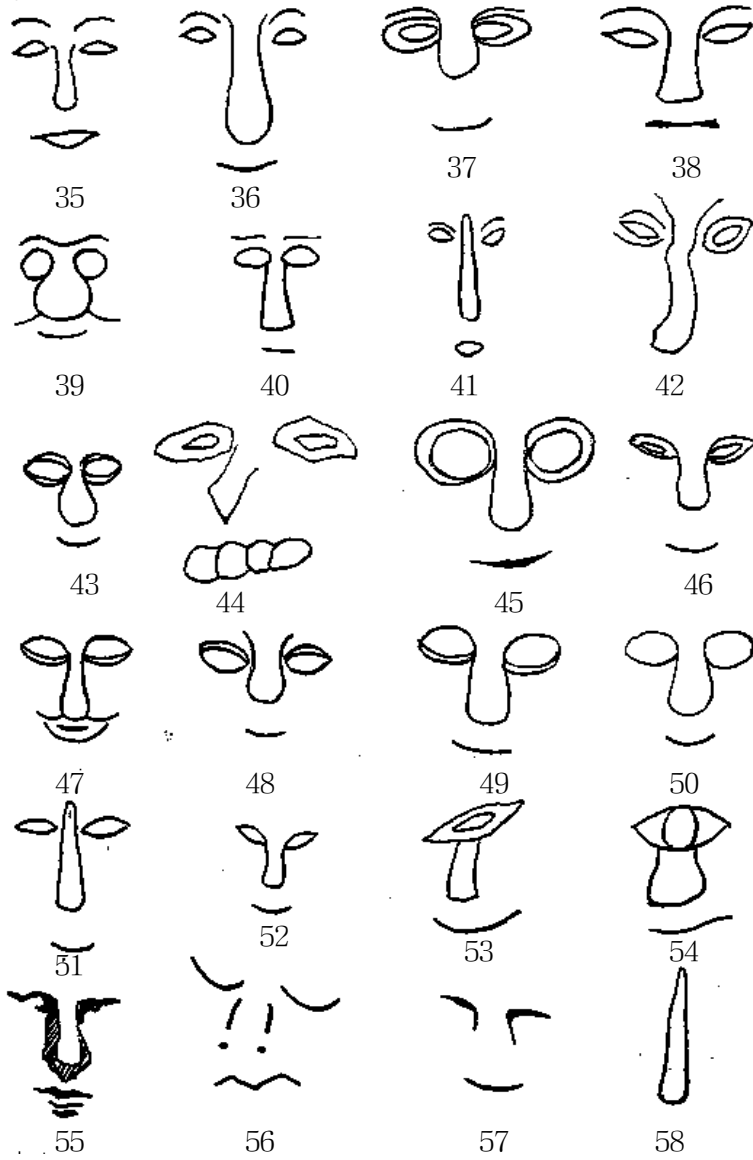
31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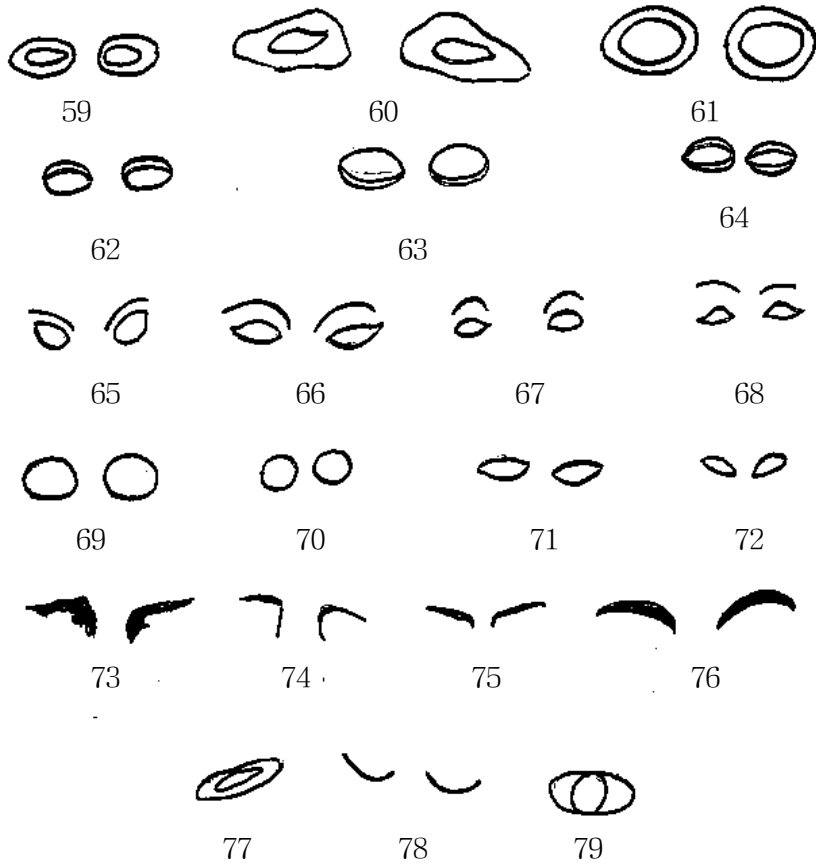
33

34

⑥ 눈, 코, 앞의 모양



⑦ 눈의 모양



⑧ 관모의 모양



80



81



82



83



84



85



86



87

⑨ 귀의 모양



88



89



90



91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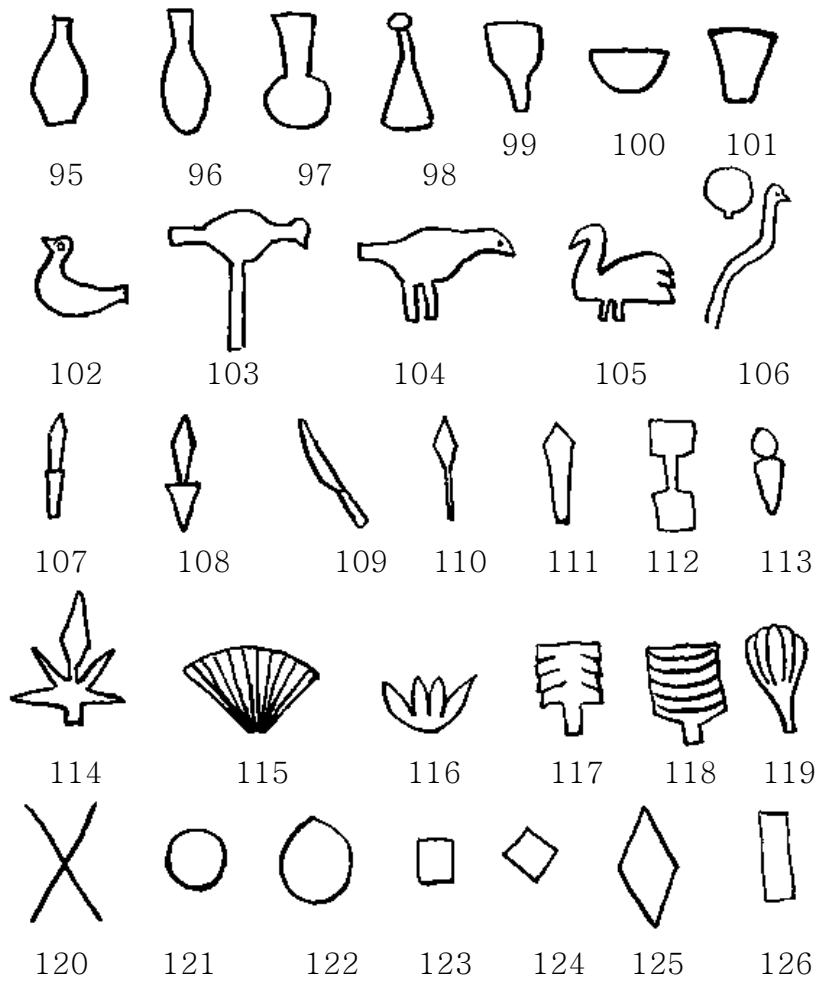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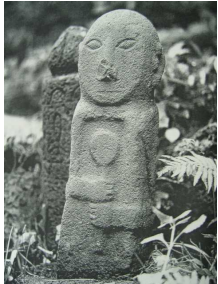
94

⑩ 지물의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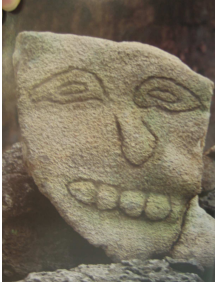
33)

⑪ 석인상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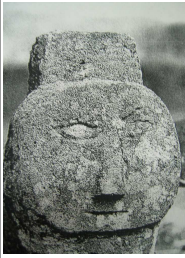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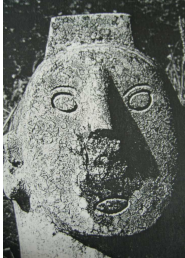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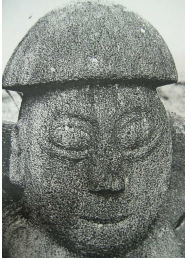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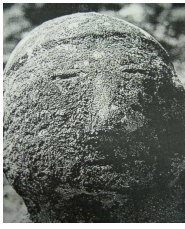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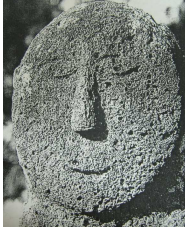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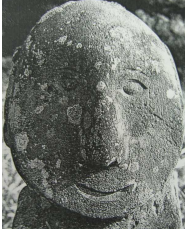
			
삼성혈 돌하르방	관덕정 돌하르방	대정현 돌하르방	성읍리 돌하르방
			
대정읍 돌하르방	제주형 문인석	북제주군 문인석	북제주 문인석
			
목석원 문인석	대정읍 무인석	대정읍 무인석	남제주군 동자석
			
남제주군 동자석	목석원 동자석	목석원 동자석	남제주군 동자석

33) 김유정, 아름다운 제주 석상 동자석, 2002, 파피루스. p.76 참고하였다.

⑫ 석인상 사진자료

			
목석원 동자석	무신궁 무신신상	무신궁 무신신상	무신궁 무신신상
			
무신궁 무신신상	무신궁 무신신상	무신궁 무신신상	석물원
			
석물원	석물원	남제주군 돌탑	영평하동 거옥
			
제주시 이호동 돌탑	모슬포 거옥	동자복미륵	서자복미륵

⑬ 제주 석인상(石人像) 얼굴 특징에 관한 사진 종합 분석표

돌하르방					
	관덕정	대정현	대정현성남문지	정의목	정의현성독문밖
문인석					
	북제주군 구좌읍	북제주군 구좌읍	북제주군 한림읍	북제주군 한림읍	북제주군 애월읍
동자석					
	남제주군 표선면	북제주군 한경면	북제주군 구좌읍	북제주군 구좌읍	남제주군 표선면
무신상					
	제주 민속박물관 진성기 무신궁 (제무 본사, 무가본풀이 당신상)				
미륵					
	제주시 회천동 화천사 대웅전 뒤에 있는 높이 65cm 정도의 현무암 석상 (五佛여래)				

(3) 제주 신앙석의 비교 분석에 관한 결론

제주의 신앙석들은 제주도를 수호하고, 제주민의 어려운 삶을 보살피며, 오랜 세월동안 제주를 지켜 오고 있다. 특 튀어나온 눈, 뭉툭한 주먹코, 넓게 뻗는 귀, 곧게 다문 입 등 기이한 얼굴에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쓰고 양손을 단정히 배 위에 올려놓은 모습 등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석상들의 다양한 형태 속에서 공통성을 발견 할 수 있었으며, 문인석과, 동자석의 진화과정을 살펴 볼 수가 있었다.

신앙석들의 조형적 원류에는 창작의 기초가 되는 자연석이 있었다. 자연석의 주 재료로 사용 되었던 다공질 현무암을 통해 다양한 석상들을 제작하였을 것이다. 현무암의 재질의 특성으로 인해 사실적인 묘사가 불가능 했으며 큰 윤곽을 통해서 동물, 인간 등사물의 중심이 되는 얼굴 중심으로 제작하였음을 짐작 할 수가 있다.(그림, 1~16)

얼굴 형태의 특징으로는 전체적으로(얼굴 특징에 관한 사진 분석표 참조)둥글고 계란형의 형태를 주로 제작 하였다. 또는 관모의 형태와 연결하여 사각의 느낌을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모든 석상들이 사각, 원, 타원 형태 위조로 제작 되지는 않았다. 자연석의 이미지를 그대로 살려 이목구비 많을 조각하여 신앙으로 모시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본 결과 얼굴의 형태는 다양성 속에 각기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얼굴의 눈, 코, 입(그림, 35~58)을 통해서 석상들의 전체적인 표정과 인상을 확인 할 수 있다. 보통 눈의 형태는 타원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무신상과 당신상에서 일자 눈과 선을 이용한 외줄음각 타원형의 눈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신상에서 외눈의 형태를 볼 수 있는 데 다른 석상들에게서와는 다른 양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눈썹의 라인은 눈의 형태와 비슷하게 따라간다. 표정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 되었다고 추측해 본다.

몸체의 모양은 손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무신상과 당신상을 제외 하고는 원통이나 직사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손은 몸체 형을 따라 묘사를 했으며 왼손 또는 오른손이 올라가 있거나 서로 마주잡고 있다.

손에는 지물(그림, 95~126)이 들려 있으며 주로 식기와 물기 동, 식물이 주로 등장한다. 또한 양손의 길이가 서로 같거나 차이가나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손가락은 보통 사람과 같은 5개를 하고 있으며 길이와 굵기 형태가 다양하다.

관모는 주로 돌하르방에 주로 나타나는데 크기에 따라 돌하르방의 형태도 비례적으로 크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단에서 3단 (그림, 80~87)까지 올려져 있었으며 단이 높을 수록 석상 또한 높게 제작이 되었다. 무신상, 동자석, 문인석, 미륵 순서로 높이는 점점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석상들의 전체적인 형태를 비교하여 보면, (그림, 17~34) “비석+동자석, 동자석+문인석, 돌하르방+무인석, 거옥+미륵” 등 다양성과 공통성을 석상들을 통해 발견 할 수가 있었다. 각기 다른 기능을 하고 있지만 서로 형태적인 측면에서 혼용이 되어 제주 특유의 신앙석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신앙석들은 하나 같이 서로 담은 꼴을 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중요시 여겼던 제주민의 마음처럼 석상들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기능을 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 분석해 보면 제주 신앙석들은 돌의 자유분방함의 미학을 통해 단순함과 과감함을 통해 독자적인 신앙석들의 돌문화로 탄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상에 대한 숭조사상과 '성 내의 수호신적 기능', '주술 종교적 기능' 그리고 '위치 표식 기능' 등을 부여 받은 제주 신앙석들은 제주민들과 영원한 삶을 함께 하고 있는 듯 하다.

■ 참고사진



<사진>47. 송향리 본향당



<사진>48. 조왕신이 살고 있는 부엌



<사진>49. 성산읍 종달리 돛짓당



<사진>50. 와흘 본향당



<사진>51. 목석원 자연석



<사진>52. 제주 무신궁 무신상



<사진>53. 제주 무신궁 무신상



<사진>54. 제주 무신궁 무신상



<사진>55. 제주시 정실 서퐁네 물동산 옆 굴형 당



<사진>56. 마라도 예기업개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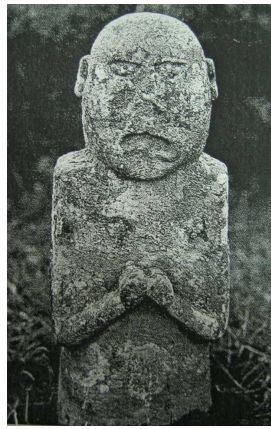
<사진>57. 제주공항 내 고인돌



<사진>58. 제주의 무덤



<사진>59. 15세기 동자석



<사진>60. 17세기 동자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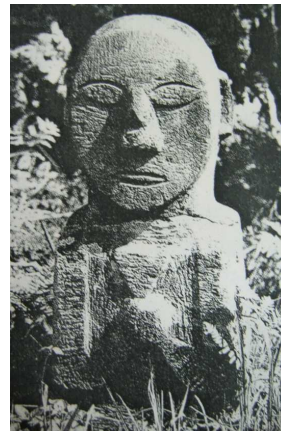
<사진>61. 18세기 동자석



<사진>62. 19세기 동자석



<사진>63. 20세기 전반 동자석



<사진>64. 20세기 후반 동자석



<사진>65. 목석원 돌탑



<사진>66. 대정읍 거옥



<사진>67. 대정읍 돌하르방



<사진>68. 관덕정 돌하르방



<사진>69. 무신궁 무신상



<사진>70. 무신궁 무신상



<사진>71. 표선면 성읍리 구렁팍당 당신상



<사진>72. 오불여래미륵



<사진>73. 오불여래미륵



<사진>74. 제주시 도평동의 용장굴 속의 미륵

III. 시작품의 디자인 계획과 시안 및 제작과정

1. 시작품 디자인 계획

제주의 돌문화를 구분하여보면, 생산성, 공공성, 종교성의 돌문화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돌문화 중에서 연구과정에서 새롭게 주목하게 된 종교성(신앙 대상을 상징)의 돌문화를 중심으로 작품 계획을 통해 작품 구상과 전개를 하였다.

또한 표면적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직접 채취한 흙과 스코리아(송이)를 배합하여 다양한 제주의 향토미를 표면처리 하였다.

질감의 표현으로는 제주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용암석, 조면질 안산암, 조면암, 비현정질현무암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 질감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다공질 현무암의 표면질감을 부각시켜 조형작업에 접목을 시켰다.

제작과정에서의 조형작업의 다양성을 구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성형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작품전개과정에서의 다양한 표면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원형을 모델링하고 석고형틀을 제작하여 판을 쳐서 형틀에 붙이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1180℃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파손율이 심하여, 조형토와 샤모트를 배합한 소지를 상용하기도 하였다.

작품의 주제로는 주로 신앙 대상을 상징으로 한 무신상, 당신상, 동자석의 이미지를 차용했으며, 제주의 독특한 돌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표면 처리를 다공질 현무암의 질감을 살려 향토성과 제주 특유 돌의 조형미를 강조 하였다.

2. 시안 및 해설

20세기의 도자예술은 분류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양식과 개념, 그리고 제작방법들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현대예술의 경향과 맥을 같이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의 예술매체에 대한 진지한 탐구 정신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³⁴⁾

제주 무속신앙에 내재한 신앙석의 조형의 원류를 도자조형을 통해 재해석 하는 과정 또한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신앙상징의 문화는 예술의 역사이래, 끊임없는 미적 표현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도자조형 분야에서도 제주 무속신앙의 신앙대상의 돌 문화를 주제로 하여 미적 대상으로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 표현하려고 하였다.

특히 제주의 자연경관 속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돌은 다른 자연물과는 또 다른 물질적 특성과 조형적 특성을 갖고 있기에 본 연구를 통해 작품 소재로 삼아 작가의 감정과 정체성을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상생이라는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서 향토미의 독창성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돌의 추상적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탄생과 소멸이라는 화두를 통하여 윤회사상의 내용을 간접적인 접근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형태의 구도, 기법과 재료의 선택에 있어 최대한 소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려고 하였으며 조형미에 내재하고 있는 시대적 정체성을 작품에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내면적, 주관적인 해석을 통하여 신앙상징의 돌 이미지를 일상에서 오는 주제들로 접근을 하였으며, 재료의 기법에 있어 독자적인 도자예술의 표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4) 조소희, 도자예술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한 연구, 동아대학교 2001,

1) <작품1>생성 (生成, becoming)



180 X 130 X 35mm

<작품1>

- 제목 : 생성 (生成, becoming)
- 크기 : 180X130X35mm
- 점토 : 굵은 조합토(50%) + 제주용기토(50%)
- 성형 : 판 성형 + 코일링성형
- 유약 : 붓 칠 시유
- 시유 : 재유부분 분부시유
- 소성 : 석유가마 1차소성 850℃, 2차소성 1250℃, 3차소성1200℃

<작품설명>

최초의 생명이 태어난 것은 약 40억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바다 밑에는 고온의 열수를 내뿜는 열수 분출공이라 불리는 장소이다. 아마 생명체가 탄생한 것은 이러한 장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제주의 용암 동굴 또한, 제주의 생성과 함께 탄생한 동굴이다. 한마디로 제주의 지표를 받쳐 주는 혈맥이기도하다. 용암동굴의 보고라는 제주에는 한라산 중 산간 8백고지 부터 수중 20미터에 이르기까지 모두 15개군 80개의 용암동굴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업화, 도시화가 급진전 되면서 용암동굴이 크게 훼손돼 제주의 지표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있다.

자연을 가꾸고 정화하여 자연의 조화를 유지하고, 인간생활의 기본이 되는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보전하여 보다 나은 생활을 도모하며, 다음 세대에도 소중한 자연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있다.

인간은 자연에 있어 하나의 객체로 존재한다. 활화산 활동을 통해 잉태한 제주 천연 자연동굴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왔다. 자연과 화해를 위한 화합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속에 신과, 자연, 인간이 함께 공존 할 수 있다는 화두를 암시하고 있다.

2) 기도(prayer)



250 X 200 X 760mm

<작품2>

- 제목 : 기도(prayer)
- 크기 : 250 X 200 X 760mm
- 점토 : 굵은 조합토(50%) + 제주옹기토(50%)
- 성형 : 판 성형
- 시유 : 붓 칠 시유
- 유약 : 제주옹기토슬립 + 스코리아(송이)분말
- 소성 : 가스가마 1차소성 850℃, 2차소성 1250℃, 3차소성 1900℃

<작품설명>

제주도는 섬이라는 자연적 한계성, 특히 거센 파도와 싸우며 살아야 하는 특수성으로, 다양한 무속신앙의 자취를 전체에 남겨 놓았다.

무속이 제주인의 생활 및 정신세계를 강력히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무속의 신관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무속의 특징들을 종합 분석하여 무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인격적인 신과의 접촉한다고 생각했던 제주민들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다.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어우러짐을 통해 참선하는 동자석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소박하고 담소한 표정을 연출하려고 하였다.

각기 다른 신들의 공존과 그 신들에 대한 믿음을 다양한 형태의 삶으로 접목 시켰던 제주민들의 돌문화의 정체성을 함축하고 있다.

3) 마음(心, mind)



260 X 240 X 710mm

<작품3>

- 제목 : 마음(心, mind)
- 크기 : 260X240X710mm
- 점토 : 굵은 조합토(50%) + 제주옹기토(50%)
- 성형 : 판 성형
- 시유 : 붓 칠 시유
- 유약 : 제주옹기토슬립 + 스코리아(송이)분말
- 소성 : 가스가마 1차소성 850℃, 2차소성 1250℃, 3차소성1900℃

<작품해설>

작업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며, 옛 석공의 마음을 가시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표현하려고 하였다. 제주의 환경이 주는 자연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묵묵히 사람의 참다운 마음을 죽은 자와 산자의 사도를 잉태하기 위해 평생을 살아야 했던 옛 선인들의 마음을 작업을 통해서 잠시나마 느끼고 싶었다. 또한 자연환경이 주는 고통과 수난 그리고 아픔과 슬픔을 공존과 상생이라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 했던 제주의 무속인의 삶을 상징적인 아이콘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신앙의 상징적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신앙인의 마음을 초를 들고 있는 동자석의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4) 변화(變化, change)



250 X 230 X 900mm

<작품4>

- 제목 : 변화(變化, change)
- 크기 : 250 X 230 X 900mm
- 점토 : 굵은 조합토(50%) + 제주옹기토(50%)
- 성형 : 판 성형
- 시유 : 붓 칠 시유
- 유약 : 제주옹기토슬립 + 스코리아(송이)분말
- 소성 : 가스가마 1차소성1250℃, 2차소성1900℃

<작품해설>

무덤에 있는 무인석의 이미지를 묘사한 작품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풍화되어 다듬어진 시간의 흔적을 통하여 삶과 죽음의 시간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시간의 변화를 풍경이라는 아이콘(지물)을 통해 바람을 묘사하였으며 바람은 보이지 않는 매개체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 한다고 하겠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무신들의 조형적인 이미지는 시간의 흔적을 남기고 있지만 그것은 보여 지는 이미지의 형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변화의 시간들을 풍경(지물)을 통해 표현해 보았다.

변화라는 화두는 풍경의 이미지의 차용을 통해 영혼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람의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말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새로운 만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늘 오늘과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반복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늘 변화를 수반한 보이지 않는 삶이 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 변화를 통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보이지 않는 세상을 조각했었던 옛 선인들의 삶은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공존하는 세상이었을 것이다.

5) 행복(幸福, happiness)



250 X 230 X 900mm

<작품5>

- 제목 : 행복(幸福, happiness)
- 크기 : 250X230X900mm
- 점토 : 굵은 조합토(50%) + 제주옹기토(50%)
- 성형 : 판 성형
- 시유 : 붓 칠 시유
- 유약 : 제주토옹기슬립 + 스코리아(송이)분말 + 소금
- 소성 : 가스가마 1차소성1250℃, 2차소성1900℃

<작품해설>

인간은 살아가는 과정에 갖가지 욕구를 가지며, 그것이 충족되기를 바라는데, 그러한 욕구가 충만 되어 있는 상태 또는 그때에 생기는 만족감이 행복이라고 설명 할 수 있다. 물론 행복의 기준은 개인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의 시간동안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의 행복 추구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행복한 삶이란 하나의 진리이며 모든 인간이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의 질서와 신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숭배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비판일까? 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삶부터 인정해야 할 것이다. 권력과 재물 그리고 명예의 물질적인 것을 우선 추구하며 개인 중심의 이기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 자아를 상대적으로 비유하며 나타내고 싶은 아이콘이었다. 세 잎 크로바는 행복을 뜻한다.

반면 네 잎 크로바는 행운을 뜻하는데, 두 가지 모두를 가지려고 하는 자아의 모습을 성찰하며 작업을 통해 선인들의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 택했던 삶을 표현하고 싶었다. 공동체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통을 통해 행복을 기원 했던 선인들의 마음을 크로바라는 아이콘을 통하여 이미지화 하였다.

6) 귀환(歸還, return)



270 X 250 X 760mm

<작품6>

- 제목 : 귀환(歸還, return)
- 크기 : 270X250X760mm
- 점토 : 굵은 조합토(50%) + 제주옹기토(50%)
- 성형 : 판 성형
- 시유 : 붓 칠 시유
- 유약 : 제주토옹기슬립 + 스코리아(송이)분말 + 소금
- 소성 : 석유가마 1차소성1190℃, 2차소성1250℃, 3차소성1190℃

<작품해설>

선사시대 우리의 조상들은 자연을 신비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왔으며 이로부터 초기의 자연물 숭배사상이 발전되어 신앙 사상이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질서”를 터득하게 되었다³⁵⁾

하지만 인간은 때때로 삶의 본질을 망각하고 허영과 가식을 좇으며 살아가기도 한다. 삶의 본질을 잊고 사는 현대인들은 신 그리고 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본질을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하기도 한다.

유년으로의 귀환은 인간이 돌아가야 할 곳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결국 자연으로의 순화하는 과정에서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끝없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위한 노래를 부르면 땅자의 석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노래가 끝나는 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기 위하여 소리의 아이콘을 차용하였다. 아이콘(지물)은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것은 볼 수가 없다. 들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는 세상과의 우연한 만남을 기대하며 작품을 제작해 보았다.

35) 민경현, 숲과 돌과 물의 문화, 예경, p.38, 1998,

7) 공존(共存, coexistence)



380 X 280 X 850mm

<작품7>

- 제목 : 공존(共存, coexistence)
- 크기 : 380X280X850mm
- 점토 : 제주옹기토(100%)
- 성형 : 석고틀 성형
- 시유 : 붓 시유
- 유약 : 무시유
- 소성 : 석유가마 1차소성1190℃,

<작품해설>

거친 돌의 표면과 흙의 갈라짐의 표면적 질감을 인위성과 자연성을 결합하여 표현하였으며, 자연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공존공영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삶의 본질을 이끌어 내려고 하였다.

공동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내면적 심사를 공존이라는 집단적 이미지를 통해 재구성 하였으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 속에 공존하고 있는 신앙상징의 석인상들 속에 동자석의 이미지를 지물과 같은 요소로 표현하였다. 오늘을 살아가는 자아적인 모습을 신앙석의 형상을 통해 민중 속에 공존해야만 하는 이유들을 공동체와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인간의 내면적 정신세계와 지향하고자 하는 삶의 교차를 통해 현재의 나를 발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자각하며 오늘을 의식하기 위한 자아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풍요 속에 빈곤을 야기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는 자아를 부정하며, 다시 현실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공존이 아닌 존속하고 있는 나를 부정하며 역지로 만들어가는 일상의 한 단면을 예술이라는 허위 광고를 통하여 포장하고 싶었다.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작가의 독특한 표현 양식에 의해 표출한 것이 예술이라고 한다면, 지금 자화상 적이며 주관적인 작가의 심상으로 해석하고만 들어진 작품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작업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는 것 같다. 내면세계를 가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자아 발견의 모색이며 함께 존속이 아닌 세상 속에 함께 공존하려는 상대성에 대한 변증법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다.

8) 향수(鄉愁, perfume)



310X310X1000mm

<작품8>

- 제목 : 향수(鄉愁, perfume)
- 크기 : 310X310X1000mm
- 점토 : 조형토(30%), 제주옹기토(70%)
- 성형 : 판 성형
- 시유 : 붓 시유
- 유약 : 제주옹기토슬립
- 소성 : 석유가마 1차소성1190℃,

<작품해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주술적 의미 즉, 영혼이나 신의 거처하고 있다고 믿는 신당에 진좌하고 있는 석인상을 통해 지극히 단순화 하면서도 본질의 형상을 추구하면서 조형예술의 원류 접근하려고 하였다.

보이지 않는 신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본 연구자의 내면세계의 표현이며 고향에 대한 향수이다. 유년의 과거와 현재의 의식적 공유와 공존성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과거와 현재의 공존과 만남을 통한 이미지의 환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형 형태의 자연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자연의 본질에 충실하려고 하였다.

9) 염원 (念願, one's long-cherished desire)



300 X 250 X 750mm

<작품9>

- 제목 : 염원 (念願, one's long-cherished desire)
- 크기 : 300X250X750mm
- 점토 : 조형토(50%), 제주옹기토(50%)
- 성형 : 판 성형
- 시유 : 붓 시유
- 유약 : 제주옹기토슬립 + 소금
- 소성 : 전기가마 1차소성850℃, 2차소성250℃, 3차소성1200℃

<작품해설>

‘사람은 땅에서 배우고, 땅은 하늘에서 배우며 하늘은 도에서 배우고, 도는 자연으로부터 우리나라. 라고 노자가 말하였듯이 인간과 자연은 서로 융합한 살아있는 조형화된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조화와 질서를 연구자의 주관적 감정에 의해 자연적 이미지를 결합한 작품이다.

인간이 자연의 진리와 신의 섭리를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고, 미미하고 하찮은 개인의 존재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진정한 만남과 조건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또한 이미지의 연출 속에 보이지 않는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융합한 흔적들을 향토적인 소재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10) 상생(相生) I



400 X 400 X 380mm

<작품10>

- 제목 : 상생(相生) I
- 크기 : 400 X 400 X 380mm
- 점토 : 제주옹기토(100%)
- 성형 : 판 성형
- 시유 : 붓 시유
- 유약 : 제주토옹기슬립 + 참나무재
- 소성 : 전기가마 1차소성850℃, 2차소성250℃, 3차소성1200℃

<작품해설>

신앙상징의 돌 문화를 새로운 디스플레이개념을 통하여 제시하는 것이 상생을 통해 바라보는 본 연구 작품의 화두이다.

혼돈과 혼란 속에 존재하는 그 지나친 과거로부터 오는 현실의 작위성을 견제하며, 집중과 이완 생태와 문명, 우주와 일상이라는 상반된 개념들의 중첩과 반복 속에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공존을 위한 상생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앞으로 이후에 도래할 새로운 제 3세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이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코 붕괴되지 않는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상생의 법칙이다.

11) 상생(相生)Ⅱ



700X640X1100mm

<작품11>

- 제목 : 상생Ⅱ
- 크기 : 700X640X1100mm
- 점토 : 조형토(50%), 제주옹기토(50%)
- 성형 : 물레성형 + 판 성형
- 시유 : 붓 시유
- 유약 : 제주옹기토슬립 + 재
- 소성 : 전기가마 1차소성850℃, 2차소성250℃, 3차소성1200℃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의 감각을 개발하고 자극하며 보다 높은 강도의 감각을 추구하도록 훈련해오고 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문화의 끝없는 팽창의 끝을 보고자하는 욕구와 호기심 그리고 그 이후에 도래할 새로운 제 3세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코 붕괴되지 않는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상생의 법칙이다. 빅뱅 이후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은하계도 어느 임계 치에 다다르면 다시 축소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현대물리학의 이론처럼, 어찌면 무실서하고 방만하게 확산되고 있는 문화의 양상도 언젠가는 수축운동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될지 모른다.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란 바로 이러한 전회(轉回)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다시 처음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대이다. 공영공존을 위한 상생의 이미지를 제주 방사 탑의 형상을 차용하여 표현하였다.

3. 시작품의 제작 과정

현대에 있어서 산업발전은 제작기술과 재료선택의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공예가의 작품 제작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 도예의 흐름이 개성이 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경향에서 재료와 성형 방법 그리고 제작 기술의 특이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공예적 표현 양식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은 작품 주제와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된다. 기술적 측면에서 점토의 선정, 성형 방법, 유약처리, 소성방법 등에 있어 작품의 주제를 어떻게 하여 유효적절하게 표현할 것인가를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조형 의식을 순조롭게 전달하는데 있어 주제와 가장 잘 맞는 재료를 선택하였다. 유약과 소지로는 고유의 향토성이 반영된 재료를 선택하였고, 소성 방법은 작업의 실용성을 고려한 가스소성과 전기소성을 하였다. 또한 성형 방법으로는 물레 성형과 옹기를 제작할 때 쓰이는 타레 성형, 판 성형을 적절히 혼합하여 성형하였으며, 작품의 형태에 따라 석고 틀 성형을 접목 시켰다. 이에 따른 본 작업에 적용된 재료 및 기법은 다음과 같다.

〈표1〉 제작과정도

① 소지실험	⑥ 1차소성 850℃
② 아이디어스케치	⑦ 유약시유
③ 모델링	⑧ 2차소성 1250℃
④ 석고 틀 성형 및 판 성형, 코일링 성형, 타레 성형	⑨ 2차 유약시유
⑤ 건조	⑩ 3차소성 1180℃~1200℃

1) 점토

작품 제작에 쓰인 점토는 제주옹기토이며 옹기 제작에 사용되는 소지이다. 작품제작에 쓰이는 흙은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 지방 및 종달리 처녀오름에서 채취하여 수비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토련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온하면서 숙성시킨 후에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사용한 제주옹기토는 건조와 소성을 하는 제작과정에서 파손율이 높게 나타났다. 파손율을 낮추기 위하여 조합토와 샤모트를 비례별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조합토의 혼합량이 많을수록 작품은 안정적으로 나왔지만 제주옹기토 고유의 발색을 발현시키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차별된 작품 위에 제주옹기토 슬립을 만들어 이장시켰다. 흙의 특성으로는 점력과 수축률이 높으며 도기 온도에서 소성되고 화산재와 철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1180℃~1250℃에서 밝은 주홍색에서 검붉은 색상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발색의 표현이 가능하다.

<표2> 점토 시편

단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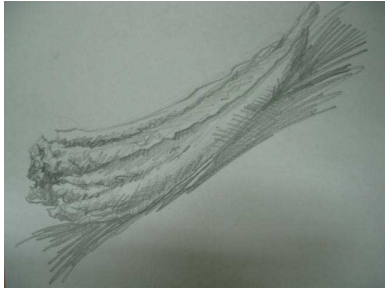
시편 data

④ 조합토 60 제주옹기토 40	③ 조합토 70 제주옹기토 30	② 조합토 80 제주옹기토 20	① 조합토 100
⑧ 제주옹기토 100	⑦ 조합토 30 제주옹기토 70	⑥ 조합토 40 제주옹기토 60	⑤ 조합토 50 제주옹기토 50

2) 아이디어 스케치

발상과 전개과정을 통해 대략적인 작품 구상을 통한 스케치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스케치와 모델링을 반복하면서 프리젠테이션 스케치와 모델링 위주로 작업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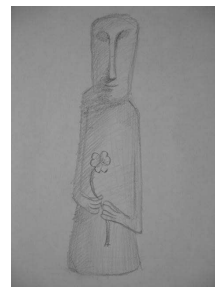
스케치는 스케치북에 연필을 사용하여 드로잉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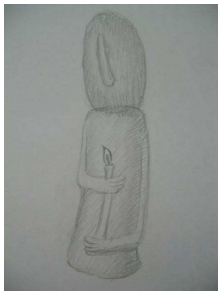
스케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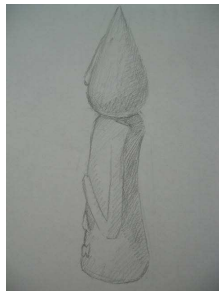
스케치2



스케치3



스케치4



스케치5



스케치6



스케치7



스케치8



스케치9



스케치10, 11

3) 모델링

다양한 모델링을 통해 작품 전개를 하였으며, 기본형에 충실한 모델링을 하려고 하였으며, 즉흥성과 우연성을 통해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4) 성형

성형을 위한 석고형틀 제작과정

1. 모델링	2. 분할벽	3. 석고 틀 성형
		
3. 2차 분할벽	4. 석고 붙기	5. 석고 붙기 완성
		
6. 정리	7. 완성 및 다듬기	
		

성형은 혼합된 점토의 가소성을 증가시키고 점토 속의 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충분히 반죽 한 점토를 작품의 크기에 따라 점토 가래를 조절해서 작품 크기에 비하여 너무 얇거나 굵지 않은 적당한 점토를 사용하였다. 대형 작품일 경우에는 적당한 시간을 두고 밑 부분을 건조해 가면서 점차 쌓아 올린 다음 적당히 건조 시킨 후 제주옹기토 슬립을 만들어 작품의 표면에 이장 시켰다. 이 같은 작업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형태를 유지시켜 가며 각 공정에 적합한 성형 및 장식 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표면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원형을 모델링하고 석고형틀을 제작하여 판을 쳐서 형틀에 붙이는 성형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5) 건조

만들어진 작품의 건조는 점토의 수축률이나 형태의 구조에 따라 적절한 건조 방법의 활용이 필요하게 된다. 본인의 작업에서는 기물의 겉 부분과 속 부분이 같은 속도로 건조되도록 신문지나 종이 등으로 감싸준 후 비닐로 살짝 씌어주면서 3주에서 4주정도 자연 건조에 의해 건조함으로써 변화나 균열을 방지할 수 있었다. 초기 작품의 건조 과정에서 신문지와 비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파손율이 많았으며 제주토의 특성상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건조를 시켜야 파손율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

6) 유약

유약이란 자기의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유리질 산화물로써 다양하고 고유한 색상 발색시키기 위한 재료이다.

작품의 실용성과 내강도성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작품의 질감과 형태의 아름다운 조형적 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시유는 작품의 크기와 내용에 알맞게 소지와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유약처리 과정에서는 콤프레셔에 의한 분무시유와 스펀지와 붓을 이용한 핸드 페인팅 기법을 적용시켰다

부분적으로는 작품이 질감과 형태적 조형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기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시유를 하였다.

<표3> 점토 유약 시편

단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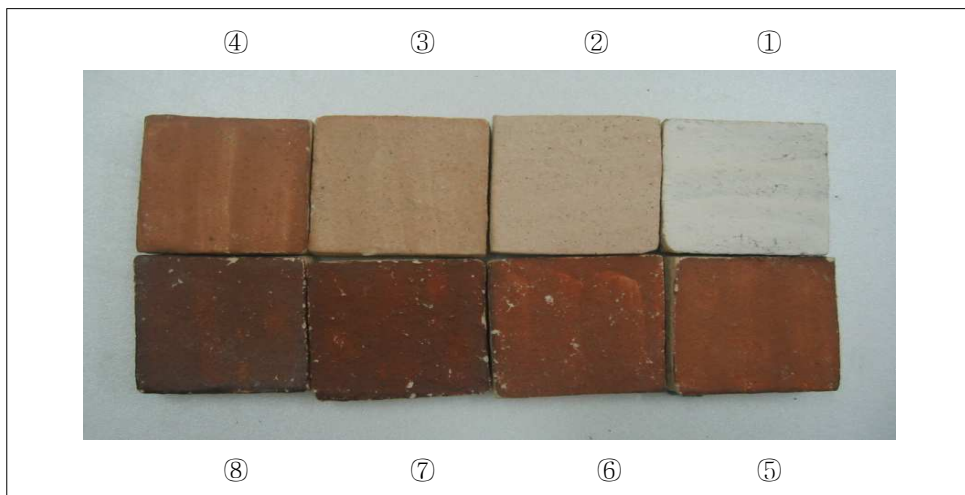


유약 data

④	③	②	①
프리트 40 참나무재 60	프리트 30 참나무재 70	프리트 20 참나무재 80	참나무재 100

<표4> 조합토 바탕으로 한 시편

단위 :100%



유약 data

④	③	②	①
화장토 60 제주옹기토 40	화장토 70 제주옹기토 30	화장토 80 제주옹기토 20	화장토 100
⑧	⑦	⑥	⑤
제주옹기토 100	화장토 30 제주옹기토 70	화장토 40 제주옹기토 60	화장토 50 제주옹기토 50

<표5> 제주옹기토를 바탕으로 한 시편

단위 : 100%



유약 data

④ 화장토 60 제주옹기토 40	③ 화장토 70 제주옹기토30	② 화장토 80 제주옹기토 20	① 화장토 100
⑧ 제주옹기토 100	⑦ 화장토 30 제주옹기토 70	⑥ 화장토 40 제주옹기토 60	⑤ 화장토 50 제주옹기토 50

<표6> 온도 차이에 다양한 변화에 의한 색깔/표면질감의 차이 단위 : 100%

 3차소성 1200℃ 표면 부분 확대	 2차소성 1250℃ 표면 부분 확대
2차 소성과 3차 소성에서 나타나는 현상 축소율에 의한 갈라지는 효과	

<표7> 조형토와 스크리아(송이)를 비율별로 혼합 한 시편



유약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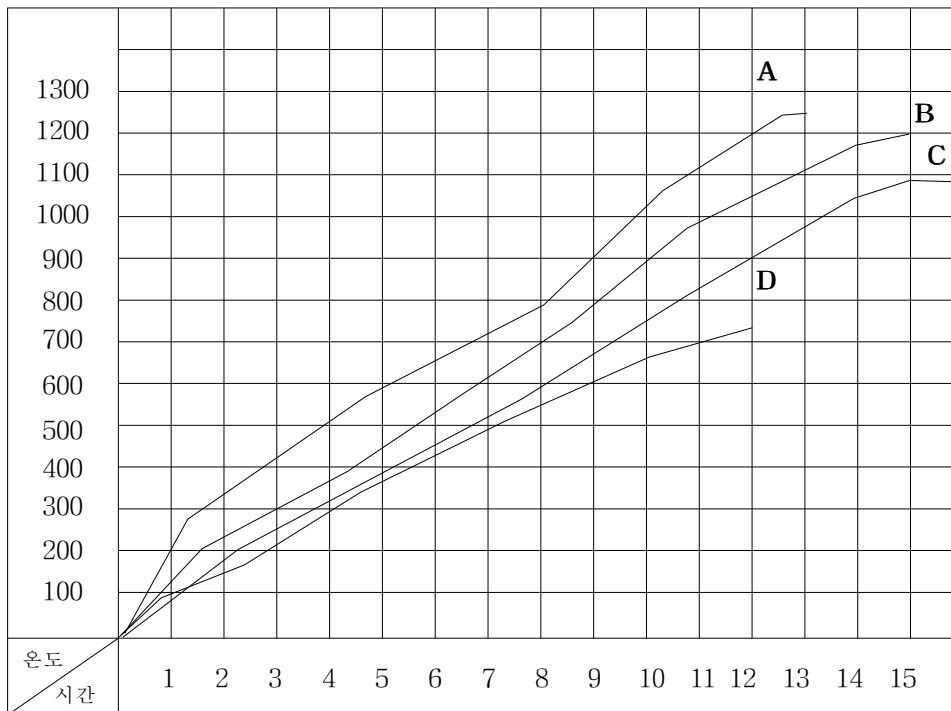
④ 조형토 50 송 이 50	③ 조형토 60 송 이 40	② 조형토 70 송 이 30	① 조형토 80 송 이 20
⑧ 송 이 90	⑦ 제주옹기토 20 제주옹기토 80	⑥ 조형토 30 송 이 70	⑤ 조형토 40 송 이 60

	
스크리아(송이) : 화산폭팔로 생겨난 붉은 자갈	스크리아(송이)의 전신

7) 소성

도자예술을 만드는 점토의 결합에서 성형, 유약의 조합 뿐 아니라 인위적인 요소를 초월한 소성 과정으로 결정적인 작품 운명을 좌우하는 불의 예술인만큼 소성과정은 어느 과정보다 중요하다. 완전히 건조된 기물은 1.0루배 크기의 대차식 가스 가마와 0.5루배 전기식 대차 가마에서 1차 소성은 850℃ (D)에서 소성하였으며, 2차 소성에서부터 4차 소성까지는 1180℃~1250℃ (C,B)의 범위에서 최소 10시간에서 최대 16시간 동안 소성하였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작품에 따라 4차 소성까지 소성을 하였다. 이 때 단별은 작품의 건조과정에서 미리 유약시편③을 시유하여 놓았기 때문에 초벌 소성을 단축하여 1200℃, 1210℃, 1250℃ (A,B,C)로 각각 작품의 발색을 달리하기 위하여 세 단계로 나누어 소성하였다.

<표8> 가마 소성 그래프



(석유, 가스, 전기가마를 사용하여 작품의 완성도에 따라 단별에서 4별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여 소성하였다.)

결 론

제주 석상들이 가지고 있는 형상적인 이미지는 독자성과 향토성이 있는 조형물이며, 선조들의 미적 감각과 조형의식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조형물이다. 우영에 있는 작은 돌들에서 돌담에 이르기 까지 어느 하나 소중한 것이 없다. 간결하고 웅골찬 제주미의 상징이 되어버린 탐라의 수호신들 중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신앙 대상 상징으로 의 극치를 간직한 석상들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분방함의 미학을 제주 흙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자연색을 발현하여 조형화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산재한 문제들이 많다. 제주옹기토의 개량과 발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제주 흙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대형 조형작업이 가능한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들이다. 성형과 소성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들을 보완하는 과정 속에서 현장답사를 통해 자료 조사 한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조형예술의 패러다임을 연결하기 위해 신앙석의 조형분석을 하였으며, 선행 연구자들의 무속 신앙과 돌이미지 그리고 인체에 관한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고찰을 통해 분석하고 작업을 전개 하였다.

제주옹기토와 불을 다루는 과정에서 경험과 지혜 그리고 성찰의 부족으로 처음에는 건조와 소성과정에서 파손율이 많이 발생하였다.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제주옹기토를 이용한 조형작업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으며 파손율도 줄일 수가 있었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옹기토의 다양한 표면적 질감과 색상을 얻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성을 하였으며 단벌소성에서 4벌소성까지 온도의 차를 두고 소성을 하기도 하였다. 소성 결과 온도에 따라 또는 가마원료에 따라 소지의 발색이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제주 옹기토의 독자적인 색상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본문의 연구결과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은 성찰과 반성의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충하려고 한다. 제주 조형예술의 원류에 내재하고 있는 신앙석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도자조형의 표현양식으로 이끌어 내려는 목적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 참고문헌

- 강창언 · 이경효, [제주전통도예], 가시아히, 2000
김유정, [아름다운 제주 석상 동자석], 파피루스, 2002
김유정, [제주의 무신도], 파피루스, 2003
김윤희, [예술, 세계와의 주술적 소통], 책세상, 2002
김호천, [돌가마], 가시아히, 2002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2001
민경현, [숲과 돌과 물의 문화], 예경, 1998
셀 링, [조형미술과 자연과의 관계], 책세상, 2002
이종철, [남녘의 벽수], 김향문화재단, 1990
진성기, [제주무신궁], 탐라인, 1992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주강현, [마을로 간 미륵 1], 대원정사, 1995
주강현,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한겨레 신문사, 1996
조성윤, 이상철, 하순애,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대상문화 재단, 지방 연구 시리즈 20, 백산서당, 2003
- 강창언, [제주도의 동자석연구-분포와 형태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1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1990
김문식, [돌을 형상화한 도자조형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김종석,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문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이윤정, [꿈속 사물의 상징을 이용한 도자표현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03
양윤영, [제주도의 뱀 상징 무속신화를 주제로 한 유리조형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유리조형디자인, 2004
조소희, [도자예술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위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논문, 2001
최연희, [도예를 통한 돌의 이미지 형상화],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9
허민자, [도예를 통한 제주도 화산암의 조형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2
현정숙, [돌 형태의 이미지 표현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석사논문, 1989
- 강창언, [제주의 방사용 탐], 제주도사 연구 제4집, 1995
강창언, [제주도의 동자석연구-분포와 형태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1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1990,
동아출판사 백과사전부, [동아 원색세계대백과 사전 제12권], 동아출판사 1989

이청규, [주도 지식묘연구(Ⅰ)-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지식묘군-],
탐라문화 제4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1995
진성기, 제주민속박물관장, [제주의 생활문화, <http://www.jtg.co.kr>], 참고
제주도, [제주의 문화재증보관], 제주인쇄공업협동조합, 1998,
제주일보, [4·3 해원 방사탑 18일 제막식 평화의 섬 수호탑으로],
1998년 4월 17일
탁명환, [제주 사신(蛇神)신앙에 대한 소고], 한국문화인류학 제10집, 1978,

〈Abstract〉

Research Of Ceramic Art Molding Applying Images of Rocks that Represent Jeju Shamanism

Lee, Young Sik
Dankuk Univ. Graduate school
Ceramic art major

Guidance Professor Kim, Hyuk Soo

Culture and art that appeals to human sensitivity is reflected in natural feature of the region, phases of the times, and appearance of the people. It is a natural result that unique genre of culture and art is created when the artists' feeling is combined with unique culture of the region and abstruseness of mother nature.

When we take a look at the rock culture of Jeju that has naturally created by geologic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 there, it's characteristics can be categorized into productivity, daily life, publicity, and religion. The rock culture of Jeju is environmentally in the middle of daily life and natural condition of Jeju. Paradoxically rock being a center of Jeju rock culture became a base of wisdom that made it possible to overcome the barren nature. The rock intermediates nature and survival of the Jejuian. Natural rocks fought against waves and wind, processed rocks provided convenience in daily life, and in

general they carried out their rolls in ancestor worship and religions.

"Shamanistic rock culture" takes a important part in Jeju rock culture. Symbols of religion that are immanent in Jeju shamaism can be categorized into Tomb Stone(Muninsuk, Dongjasuk, Jisukmyo), Stone Tower(Keouk), Dolhareubang, Mushinsang, Dangshinsang, Maitreya, and so on.

Religious rock culture is referring to traditional stone statues that are served as gods in the shamanism society of Jeju. Thus, these statues not only have religious divinity but also make it possible for us to see true aspects of our ancestors contrary to general stone statues and portraits. The fact that these statues have been changed and developed in a same way with the viewpoint of nature in Jeju can be noticed by these data.

In other words, religious rocks have standardized while natural given divinity has projected into human personality.

Jejuians learned how to live symbiotically with nature, god and human in given barren environment of nature. They saw god through natural rocks, and saw rocks whatever they intend to while leaning their community spirit against the pile of rocks.

The intention of this research is to draw roots of formative art that are immanent in Jeju Shamanism into the real world through esthetical thinking and also express unique natural beauty, traditional beauty and shamanistic rock culture of Jeju reflected in Jeju shamanism through ceramic moldings. Besides various techniques have been applied in order to bring a watery characteristic of soil and characteristics of other materials into relief while emphasizing matiëre of the rocks and I consider this article to have a unique point and to be valuable when art is recreated as subject formation art of the artist based on contingency and improvisation.

The work represents an image of molding showed in watery characteristics, colors of soil, disperse and reflection of light based on characteristics of Jeju pottery soil. Also other level of beauty is expressed when the image of stone is recreated into soil.

Moreover, formative characteristic was understood through formative analysis of religious rocks. And the faces were analyzed by focusing on facial expressions and appearance, formative analysis was also processed by emphasizing on shapes of bodies and hands.

Even though I have collected and organized data through field investigation, I have attached preceded research images and data due to the massiveness of the data.